

통전적 선교의 회복에 관한 연구

새중앙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황덕영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8년 5월

Copyright © 2018 Duck Young Hwang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Recovery of Holistic Mission A Case Study of Saejungang Church, Anyang, Korea

Duck Young Hwang

Saejungang Church, Anyang,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ver holistic mission, in terms of biblical and contextual perspectives, by examining the case of Saejungang church, and to look beyond the present and hope for the future of missional church. God is the missionary God (Missio Dei), and the people of God are missionary people.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our mission is not our own, but that it is God's and that God has called the church to join God's divine mission. In fulfilling these missions, all of these things are not the only ones who could afford to do, nor are they exclusive to ministers or missionaries. We must realize that they are the works of the whole church and that all the saints are part of them. Furthermore, we must remember and practice that God's mission. Mission is one of the highest tasks God has bestowed us on earth, where all missionary resources, including the church, must work together.

God's world mission cannot be accomplished with only one type of ministry or specific gifts. God has created each of us uniquely and gave each person unique gifts useful to serve God. We have pointed out the weak points of weak team ministry in Korean missions. In order to become a holistic mission, delegation and cooperation based on mutual trust are needed. It is to live a life of energetic mission by working together with the perspective of the kingdom of God and being a body of Jesus Christ. For this purpose, a holistic missional life that includes both regional, generational, and field categories will lead to a more biblical, balanced and healthy mission.

In addition, in the category of the field of mission, each church can develop

holistic missions through networks with other churches, networks with seminaries and denominations, networks with mission para-churches and NGOs, and a network of diverse professional and missional ministries. When missionary resources in diverse areas become united through respect, trust, and love, we will be able to see energetic and balanced beautiful missional fruits.

국문초록

통전적 선교의 회복에 관한 연구

새중앙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황덕영

새중앙교회, 한국

본 연구의 목적은 통전적 선교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이고 상황적인 관점에서 먼저 고찰해보고 새중앙교회 사례를 통해 실재적인 적용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를 넘어 미래의 선교적 교회와 삶의 모습을 통전적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Missio Dei)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하는 백성이다. 우리가 감당하는 선교라는 것이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이며 그 신적 사명에 교회를 동참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모든 것은 혼자서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고 목사나 선교사들의 전유물도 아니며 그 사역은 교회 전체의 사역이며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사역임을 깨달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 사명은 교회를 비롯한 모든 선교적 자원들이 함께 협력하며 이루어가야 하는 지상최고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적 사명은 한 가지 형태의 사역이나 특정한 은사로만 성취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독특하게 지으셨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유용한 독특한 은사들을 주셨다. 한국 선교에 있어서 팀 사역이 약하다는 약점들이 지적되어 왔는데 통전적 선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임과 협력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서로 동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통전적인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적 범주와 세대적 범주, 그리고 영역적 범주 모두를 아우르는 통전적 선교의 삶을 이루어 간다면 보다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건강한 선교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에 더하여 영역적 범주에서 각 교회는 타교회와의 네트워크, 신학교 및 교단과의 네트워크, 선교단체 및 NGO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다양한 전문성과 은사별 사역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전적 선교를 발전시키며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선교적 자원들이 우열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존중과 신뢰와 사랑을 통한 연합을 이루어 갈 때 통전적이고도 균형 잡힌 아름다운 선교적 결실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목 차

감사의 글	viii
I. 서론	1
연구의 목적	1
문제제기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2
논문의 구조	3
II. 통전적 선교에 대한 신학적/상황적 관점	5
신학적 관점	5
상황적 관점	21
III. 통전적 선교에 대한 대안: 새중앙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30
지역 관점의 통전적 선교	30
세대 관점의 통전적 선교	60
영역 관점의 통전적 선교	84
IV. 결론	103
참고 문헌	106

감사의 글

이 논문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사랑과 도움을 주신 분들이 참으로 많다. 나의 삶과 신앙에 귀한 영향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학문적 도전과 사역적 열정으로 논문을 지도해주신 세 분의 지도교수님- 레너드 스윗 교수님, 조병호 교수님, 김영래 교수님-과 이 논문의 주제인 통전적 선교의 삶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신앙과 삶에 있어 모범과 멘토가 되어 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곁에서 사랑과 기도로 늘 응원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도 고마움과 감사를 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그리고 이 논문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사랑하는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제 I 장

서 론

연구의 목적

본 연구를 통해 통전적 선교가 무엇인지를 성경적 상황적 관점에서 고찰해보고, 새중앙교회 사례를 통해 현재를 넘어 미래의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통전적- 지역적, 세대적, 영역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문제제기

본 연구가 탐구하고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통전적 선교에 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둘째는 선교라는 것이 특별히 헌신된 성도나 이를 우선적인 비전으로 삼은 특정한 교회의 사명으로만 존재해도 되는 것인지, 셋째는 선교의 삶이 가정과 일터와 삶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현장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넷째는 선교가 세대간에 그리고 영역간에 연합하여 건강하게 이루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마지막 다섯번째로 통전적

선교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지금의 부족함을 보완하여 통전적 선교를 발전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지, 이러한 물음들이 본 연구가 제기하는 문제들이다.

연구의 방법

통전적 선교에 관한 신학적이고 상황적인 관점은 주로 책과 논문, 저널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통전적 선교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와 미래적 제안은 기존의 문서자료들 외에 새중앙교회의 사역메뉴얼과 사역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통해 다루었다.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본 연구는 통전적 선교에 관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사례의 현장을 새중앙교회로부터 시작하여 그 시각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기에 다른 문화적 배경과 전통 속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사례와는 자칫 이질적이 될 수 있다. 특별히 통전적 선교의 삶에 관해 지역적, 세대적, 영역적 관점을 다룸에 있어 한정적인 지면을 이용한다는 제한성으로 인해 다양한 사례가 있음에도 선택적으로 선별되었음을 밝힌다. 본 연구를 통해 발생되는 더 많은 발전적인 논의와

사례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논문의 구조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써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 및 제한성, 그리고 논문의 구조를 밝히고 있다. 2장에서는 통전적 선교에 관한 신학적 관점과 상황적 관점을 다루고 있는데 신학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Missio Dei, 복음전파와 사회참여와의 관계, 그리고 평신도론과 은사론에 관한 논의를 통해 통전적 선교에 대한 재정의의를 시도한다. 그리고 상황적 관점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한국교회 선교의 강점과 약점을 언급하는 동시에 오늘날의 일반적인 시대적 변화들을 다루고 있다. 3장에서는 통전적 선교전 교회의 한 축이 되는 지역적 관점을 통해 개인과 가정, 일터와 지역사회, 북한과 한반도지역, 디아스포라와 세계를 잇는 선교적 삶을 제시하고, 4장에서는 세대적 범주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 및 노인문제 등을 통전적 선교의 관점으로 다룬다. 5장에서는 통전적 선교를 영역적으로 구분하여 지역교회간의 네트워크, 교회와 신학교 및 교단간의 문제, 교회와 선교단체, 교회와 NGO단체간의 네트워크 문제, 그리고 다양한 은사별 사역간의 네트워크를 고찰하면서 통전적 선교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을 통해 본 연구를 마무리한다.

제 II 장

통전적 선교에 대한 신학적/상황적 관점

신학적 관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토대일 뿐만 아니라 선교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성경적이고도 신학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선교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선교에 관한 적용적 논의에서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선교신학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되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라고 할 수 있다.¹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선교에 관한 관점을 정리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 중요한 성경의 중심주제라 할 수 있다.²

¹ Kirsteen Kim and Andrew Anderson eds., *In Edinburgh 2010: Mission Today and Tomorrow* (Oxford: Regnum Books International, 2011), 121.

² Charles E. Van Engen, Dean S. Gilliland, Arthur F. Glasser, and Shawn B. Redford, *Announcing the Kingdom: The Story of God's Mission in the Bible* (Grand Rapids, MI: Baker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이고 또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나라이다.³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며 죄와 죽음을 이기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정해놓은 틀을 깨뜨리시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셨다.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한 복음의 능력은 교회와 가정, 지역공동체와 세상의 모든 영역까지도 확장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통전적 선교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으며 이 땅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상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데 특별히 오늘날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세상에서 교회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

Academic, 2003), 20.

³ Dewi Hughes and Matthew A. Bennett, *God of the Poor* (Carlisle, UK: OM Pub., 1998), 31.

⁴ Ibid.

⁵ Neil Cole, *Organic Church: Growing Faith Where Life Happen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5), 41.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흠뻑 맛보고 전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⁶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한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이다.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Missio Dei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Missio Dei)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 개념은 선교를 정의하는데 중요한 틀이 된다. 여기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Missio Dei)이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통합적인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바로 이 역사하심에 인간의 동참을 초청하시는 신적역사가 포함되어 있다.⁷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0:21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신 것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⁶ Kim, *In Edinburgh 2010*, 121.

⁷ Daryl Balia and Kirsteen Kim, *Edinburgh 2010: Witnessing to Christ Today of Edinburgh 2010 Series* (Eugene, OR: Wipf & Stock, 2010), 128.

그 보내심의 목적이 바로 선교인 것이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Missio Dei)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위험성있을 수 있는 인간의 협력을 선택하셨다고 할 수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제자들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을 하신 부분에도 드러나 있는 것이다 (마 28:18-20).

특별히 선교하는 하나님(Missio Dei)이라는 표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감당하는 선교라는 것이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이며 그 신적 사명에 교회를 동참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이다.⁸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인간 및 우주의 재창조라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역에 특권적인 도구가 되는데 선교가 무엇인가에 관한 신학적인 사고의 변화는 교회론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즉 선교와 교회는 뿔래야 뿔 수 없는 관계가 된다.⁹

그런데 오늘날 선교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 주목해야 할 사실은 1910년(약 한 세기 전) 과거에는 교회의 선교에 관한 강조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2010년 이후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는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회중심의 선교(Church-centered mission)에서 선교중심의 교회(Mission-centered church)로의 이동을 말하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선

⁸ Ibid., 23.

⁹ Ibid., 201.

협력선교의 길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⁰ 다른 각도로 본다면 에딘버러 1910년(한 세기 전)에는 교회와 선교를 분리하여 다루었지만 오늘날의 선교는 선교적 교회에 관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¹¹ 선교는 교회의 여타 활동 중에 부분적인 하나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사명 자체가 선교에 있음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적 활동에 교회는 영광스럽게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복음전파와 사회참여와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에 관한 개념이나 선교하시는 하나님(Missio Dei)에 관한 개념 모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전파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¹² 복음 전파와 사회참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명에서 중요하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복음전도가 우선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참여와 활동 그 자체로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없고 복음전파가 사회참여로 대체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¹⁰ Ibid., 11.

¹¹ Ibid., 117.

¹² 대표적으로 지상명령으로 불리는 마태복음 28:19-20과 그 밖에 여타 복음서들의 구절들, 그리고 사도행전 1:8 등을 비롯하여 성경전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전파 사명이 분명히 나타나있다.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데 이 일에 파트너가 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우선적 사명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파편화되고 부분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증거의 사명을 영적인 차원에서만 국한시키면 안된다. 우리는 복음의 전파에 관한 사명이 우리의 사회와 피조물 전반에 걸쳐 우리의 삶의 전영역을 아우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 말해 복음 전파와 사회적 참여, 둘 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들의 하나됨만을 위해 배타적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 등 모든 영역을 두고 간구하셨다.¹³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사회의 구조적 환경속에 하나님께서 두셨기에 내적 회심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관심갖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개인 구원의 범위를 뛰어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총체적이고도 통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경제 기구에 도전하고 사회가치를 뒤집고 때때로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을 대적하셨던 것이다.¹⁴ 복음전파나 사회적 참여 중에 어느 한 쪽에 초점을 더 맞추어 사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둘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서로

¹³ Balia, *Edinburgh 2010*, 211-212.

¹⁴ Eddie Gibbs and Ryan K. Bolger, *Emerging Churches: Creating Christian Community in Postmodern Culture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5), 44.

긴밀히 연관된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가정과 지역공동체, 나라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변화시키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사회참여의 차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회는 성도들의 관점이 폭넓게 바뀌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¹⁵ 사회적 참여에 관한 사역은 여러 분야의 에너지들을 통합해야 하기에 개인보다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의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교회 안의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사회적 직책이나 역할에 따라 사회적 요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사회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정치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슬픔과 열망 등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이들은 예언자적 자세로 사회의 불의에 대해 도전하면서 억눌린자를 위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신들의 직업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적인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이렇게 건강한 신앙공동체는 사회적 필요를 인식하고 정치적 영역에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사회의 발전에 새로운 대안들을 창조적으로 제시하게 된다.¹⁶

특별히 가난의 문제를 위해 기독교적인 활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¹⁵ Peter Cha, S. Steve Kang, and Helen Lee, *Growing Healthy Asian American Churches* (Downers Grove, IL: IVP Books, 2006), 189.

¹⁶ Leonard Doohan, *Laity's Mission in the Local Church: Setting a New Direct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6), 98.

가는데 있어 중요한 주제가 된다.¹⁷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면 사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아들, 과부들, 피난민들을 위한 정의를 이루는 것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복음의 기초가 되었다.¹⁸ 불확실한 미래에서 드러나는 지속적인 위기 중 하나는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경제에서 크게 뒤쳐져간다는 것이다.¹⁹ 전세계의 30%이상이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상황에서 10/40창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가난에 처해있다. 이 지역에서의 선교사들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은 구호사역이나 구제, 사회복지 사역들을 직간접적으로 가담할 필요가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모두가 사회복지 사역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간과한다면 빈곤에 처한 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선교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²⁰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의 몸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나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더 더욱 많이 배워갈 수

¹⁷ Hughes, *God of the Poor*, 25.

¹⁸ Howard A. Snyder, *Liberating the Church: The Ecology of Church & Kingdom*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3), 208-209.

¹⁹ Tom Sine, *The New Conspirators : Creating the Future One Mustard Seed at a Time* (Downers Grove, Illinois: IVP Books, 2008), 197.

²⁰ Young Nam Kim, "A Contextualized Training Program for Twenty-first century Korean Missionaries," (박사학위논문,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4), 154.

있을 것이다.²¹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한다. 종교적 이기심에 취해있으면 안된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²² 가난과 실업 등과 연결된 불의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긴급하고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행동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교회들의 세계적인 연대와 정부와의 연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그들의 잠재력을 북돋아주는 것, 배고픔과 영양실조에서 벗어나게 하고 건강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것, 기초교육과 고등교육, 직업교육등을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가난의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등이 포함될 것이다.²³ 기독교의 커져가는 사회인식과 사회 봉사에 관한 헌신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의 영역이 되었다.²⁴

교회론 (평신도론과 은사론)

평신도론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명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관한 바른 지식과 인식을

²¹ Snyder, *Liberating the Church*, 213.

²² Doohan, *Laity's Mission in the Local Church*, 97.

²³ Balia, *Edinburgh 2010*, 180.

²⁴ Doohan, *Laity's Mission in the Local Church*, 98.

제공하는 교회론이 필요하다. 교회는 진리에 기초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²⁵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주권이 교회와 선교의

기초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²⁶ 특별히 통전적인 선교사역을 이루어 가기 위해

목사와 평신도의 아름다운 연합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미래교회에서도 목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더불어 평신도가 주된 신학자로 활약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선교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이다.²⁷

사실 교회 구성원의 99퍼센트 이상이 평신도이다. 그들은 교회의 제2급

구성원들이 아니다.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는 기능과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계급

서열이 아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교회의 피지배자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²⁸ 참된

교회 개혁은 평신도 사역이 회복될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²⁹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자기 소유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을 자기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평신도 사역의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충추적인 요소이다.³⁰

²⁵ Cole, *Organic Church*, 33.

²⁶ David Fisher, *The 21st Century Pastor: A Vision Based on the Ministry of Paul*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6), 28.

²⁷ Loren B. Mead, *The Once and Future Church : Reinventing the Congregation for a New Mission Frontier* (Washington, D.C.: Alban Institute, 1991), 57.

²⁸ Sun Young Lee, "Lay Ministry: A New Mission Paradigm for the Korean Church in the 21st century," (신학박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2), 14.

²⁹ Ibid., 4.

³⁰ Ibid., 14.

‘평신도’의 어원은 그리스어 라오스(*laos*)이다. 이 말의 의미는 ‘백성’으로, 보통 하나님의 선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³¹ 신약성경에 보면 이 말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가 나온다. “...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라오스)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라오스)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라오스)이요...” (벧전 2:9-10). 이 구절에서 저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려고 한 장면이 나오는 출애굽기 19장을 언급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중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 19:5-6). 단지 레위 족속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백성이 세계에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목적의 통로가 될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임하신 것이었다. 비록 이스라엘이 종종 불성실하였고, 그 위임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다.³²

한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교역자를

³¹ Oscar E. Feucht, *Everyone a Minister: A Guide to Churchmanship for Laity and Clergy* (St. Louis, MO: Concordia, 1974), 57.

³² Snyder, *Liberating the Church*, 170-171.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이다.³³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직의 의미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메시아에 한정되게 되지만(히 3-8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³⁴ 교회의 탄생과 함께 구약의 제사장직은 무시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왔기 때문이다.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신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레위의 제사장직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다(히 7:1-10). 전 교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교회가 제사장들의 나라이고 제사장다운 나라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유롭게 된 제사장다운 백성이다.³⁵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성직자”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kleros* 에서 유래되었고,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ekklesia* 와 마찬가지로 “부르다”라는 동사와 연결되어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직자”임을 알 수 있다.³⁶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적으로 어떠한 지위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³³ Feucht, *Everyone a Minister*, 40.

³⁴ Snyder, *Liberating the Church*, 171.

³⁵ Ibid.

³⁶ Feucht, *Everyone a Minister*, 57.

모두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³⁷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평신도(라오스)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성직자(클레로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시고 초대교회에 영적 질서와 역할들을 두셨다. 교회 안에서 목사의 역할과 영적 리더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 직책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기초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목사와 평신도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고 이 둘 사이에 어떤 구분이 있더라도 평신도가 복음 사역자인 것과 하나님의 ‘성직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³⁸ 모든 성도가 바른 팀을 이루어 간다면 계급과 통제의 문화를 넘어서서 바른 연합과 일치의 문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³⁹ 그리고 사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서(만인제사장), 그리고 성직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전적 선교 사명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가장 큰 유일한 소망이다.⁴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명을 위해 차별없이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감격과 축복이 되는 동시에 어떻게 통전적인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방향성, 즉 서로간의 협력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³⁷ Lee, “Lay Ministry,” 3.

³⁸ Feucht, *Everyone a Minister*, 58.

³⁹ Gibbs, *Emerging Churches*, 126.

⁴⁰ Feucht, *Everyone a Minister*, 143.

확신을 제공해준다.

은사론

위에서 평신도론을 언급하면서 은사에 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때 통전적 선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고 성직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이 모두가 사역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나타내어 주지만,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은사에 관한 논의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⁴¹ 사실 교회의 모든 사역들, 특별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모든 것은 혼자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그 사역은 목사나 선교사들의 전유물도 아니며 그 사역은 선교를 위해 동원되어 훈련 받은 교회 전체의 사역이고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초대교회는 장로와 집사와 같은 지도자들을 선별했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책임을 부여하면서 자신들의 영적 은사들을 따라 교회를 섬기도록 했다.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가 하는 일인 동시에 교회안에 리더십 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의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이 교회안에 계급이나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회안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적인 권위와

⁴¹ Snyder, *Liberating the Church*, 178.

⁴² Feucht, *Everyone a Minister*, 80.

질서속에 책임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의 자원이 어떻게 쓰여야 할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⁴³ 선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선교를 이루어가심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역할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령은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유용한 은사들을 교회에 주신다. 곧,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와 치유, 권면, 방언 등과 같은 다른 은사들인데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은사에 관해 잘 드러나 있음을 할 수 있다.⁴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직업, 물질과 지위와 같은 자원들을 선교사역을 위해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할지를 터득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세계선교적 사명은 한 가지 형태의 사역이나 특정한 은사로만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독특하게 지으셨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유용한 독특한 은사들을 주셨다. 이러한 은사의 다양성을 이해한다면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다른 이들의 장점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⁴⁵ 하나님의 선교에서 미래의

⁴³ David J. Hesselgrave, *Planting Churches Cross-Culturally: North America and Beyond*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0), 73.

⁴⁴ Snyder, *Liberating the Church*, 175.

⁴⁵ Max DePree, *Leadership is an Art* (New York: Doubleday, 2004), 25-26.

성공은 한 개인의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원과 은사들을 공유하고 팀을 위하여 개인의 야망을 무시할 줄 아는 서로에 대한 인정과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⁴⁶

사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가장 잘 나타내는 묘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미지이다.⁴⁷ 바울은 교회의 각 성도를 전체 몸의 지체로 설명한다. 각 사람은 그 기능이 다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지체가 소중하고 각 지체마다 몸을 이루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연약한 지체가 몸에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 모든 지체가 중요하고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에서 모든 지체는 불수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⁴⁸ 이러한 묘사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강조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다른 요소가 있다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 사이에서의 본질적인 통일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절들에서 교회의 통일성, 예를 들면 한 믿음, 한 주, 한 세례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교회를 단체가 아닌 살아 있는 유기체로 이해했다.⁴⁹

다시 말해 은사를 이해할 때는 다양성과 상호성, 그리고 통일성 모두가 성경의

⁴⁶ Frances Hesselbein, Marshall Goldsmith, Richard Beckhard, and Peter Ferdinand Drucker, eds., *The Leader of the Future: New Visions, Strategies, and Practices for the Next Era of The Drucker Foundation Future Series* (San Francisco: Jossey-Bass, 1996), 213.

⁴⁷ Lee, "Lay Ministry," 38.

⁴⁸ Ibid., 40.

⁴⁹ Ibid., 3.

가르침안에 있음을 깨닫고 선교사역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⁵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각자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을 맘껏 활용하여 통전적인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상황적 관점

한국교회 선교의 강점

한국교회는 세계선교에 있어서 많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한 역사가 전혀 없기에 다른 나라를 선교할 때에 역사적인 부담이 없다. 서구 교회들은 세계 3분의 2에서 동반 식민지화한 역사적 부담이 있는 반면에 한국 교회는 그러한 부정적인 역사적 과거가 없어서 세계 선교에서 독특한 역할이 있는 것이다.⁵¹ 더욱이 한국 교회는 여러 난관과 고난을 극복했고, 심지어 지난 세기에는 박해까지 경험했다. 한국 선교사들은 선교 대상들에게 접근할 때 부딪치는 어떤 방해도 뚫고 나갈 강한 믿음이 있다.⁵²

오늘날 한국 교회의 특징은 전적인 헌신과 강한 열정이 있다는 것이다.⁵³

⁵⁰ Snyder, *Liberating the Church*, 172-173.

⁵¹ Kim, "A Contextualized Training Program for Twenty-First Century Korean Missionaries," 95.

⁵² Ibid., 95-96.

⁵³ Kyeong-Sook Park, "Training Korean Missionaries for Team Effectiveness: A Study

한국 선교사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고 이러한 한국 교회에 강력한 선교적 믿음과 헌신이 있다는 것은 세계 선교에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⁵⁴ 이와 함께 광범위하고 열렬한 기도의 삶이 있고 세계 선교 사역에 필요한 교회의 풍부한 인적 재정적 자원이 있다.⁵⁵ 대부분 한국 선교사들은 뛰어난 신학 훈련이 있고 지역교회의 사역 경험이 있다. 강력한 기도와 재정적 지원 등, 한국 교회는 세계의 다른 교회들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물질적인 자원이 있다.⁵⁶

더욱이 지금 한국인 디아스포라는 세계 도처에 퍼져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은 연약한 백성이었고, 늘 자기보다 강한 나라들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거나 추방되었다. 자의든 타의든 한국을 떠나 사는 많은 디아스포라 한인들은 타문화권에 살면서 놀라운 선교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또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위해 디아스포라는 매우

based on the KOSIN Missionaries in the Philippines,” (선교학박사학위논문, Biola University, 1996), 3.

⁵⁴ Kim, “A Contextualized Training Program for Twenty-first century Korean Missionaries,” 95.

⁵⁵ Park, “Training Korean Missionaries for Team Effectiveness,” 3.

⁵⁶ Kim, “A Contextualized Training Program for Twenty-First Century Korean Missionaries,” 95.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⁵⁷ 중국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식당을 열고, 일본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업을 시작하고 한국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⁵⁸

한국교회 선교의 약점

한국 선교에 관한 여러 약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중 통전적인 선교를 이루는 것에 관한 것 중 하나가 팀 사역이 약하다는 것이다.⁵⁹ 그리고 이러한 팀 사역이 실패하는 이유는 경쟁적인 개인주의 때문인데 일정부분 그 동안의 선교를 자신의 교회나 교단의 확장으로 생각하여 다른 공동체와 협력하지 않아 선교에 많은 무리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⁶⁰ 오늘날 하나님의 선교에 관해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바로 개인주의인데 이러한 개인주의 영향 때문에 비록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핵심 중 하나일지라도 편협되고 왜곡된 개인주의적 신앙과 사역으로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⁶¹ 개인적인 신앙과 사역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통전적인 선교는 협력없이 는 요원하기에 진정한 교회의 역할로써 하나님을 힘쓰며

⁵⁷ Ibid., 95-96.

⁵⁸ Ibid.

⁵⁹ Park, "Training Korean Missionaries for Team Effectiveness," 4-5.

⁶⁰ Kim, "A Contextualized Training Program for Twenty-First Century Korean Missionaries," 169.

⁶¹ 김동선, *통전적 선교를 위한 신학과 실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286.

네트워킹하고 서로 한몸되어 사역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교회 안에서의 이기적 성향으로 인한 팀사역의 약화 뿐만아니라 타문화권과의 관계속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선교사역의 경향이 많이 보여져왔다. 한국 문화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크게 변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전에 독특한 환경 곧 단일 문화와 단일 언어 환경에서 살았다.⁶² 단일 문화와 단일 언어적 관점으로 인해 한국 교회의 선교사역들은 크게 영향을 받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종종 자만심이나 불안감으로 인해 자기 민족 중심주의적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우월감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교 문화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³ 오랫동안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다른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비교 문화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많은 한국 선교사들은 그들의 문화적 사고방식을 선교지에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단일 문화 방식으로 실수를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혼란과 오해와 심지어 갈등까지 초래하게 되었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자기 민족 중심적인 태도와 경쟁적인 자기 중심주의에서 비롯되는 잘못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화적 상대주의를 평가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있어야 한다.⁶⁴

⁶² Kim, "A Contextualized Training Program for Twenty-First Century Korean Missionaries," 157.

⁶³ Ibid., 97-98.

⁶⁴ Ibid., 165-166.

또한 통전적 선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임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선교에서 보여졌던 여러 리더십 구조의 상황들을 보면 어떠한 협력적 리더십의 여지를 배제하고 관계 중심보다는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경향이 있어왔다.⁶⁵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하향식으로,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통한 과별주의와 계급적 사회 시스템과 같은 것들이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⁶⁶

이를 통해 선교사들과 교단들과 선교 기관들 사이에 경쟁과 갈등이 존재하고 팀사역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동시에 선교의 중복투자로 사역효과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⁶⁷ 선교지 현장에서는 현지 주민들의 리더십을 존중하여 세우거나 위임하기 보다는 존중과 신뢰를 떠나 돈에 근거한 통제방식을 취할 때가 많았다.⁶⁸ 한국 선교가 서구 선교를 비판해 왔지만 불행히도 서구 선교의 잘못들을 반복해서 여전히 식민주의적이거나 군대식의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리더십 패러다임으로 선교를 이루어 온 많은 부분들이 있었다.⁶⁹

⁶⁵ Park "Training Korean Missionaries for Team Effectiveness," 4-5.

⁶⁶ Kim, "A Contextualized Training Program for Twenty-First Century Korean Missionaries," 100.

⁶⁷ Ibid., 97.

⁶⁸ Ibid., 177.

⁶⁹ Ibid., 97-98.

시대적 변화들

오늘날 시대의 모든 변화들과 상황들을 이곳에 다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몇가지만 이곳에서 짧게 다루고, 계속되는 3,4,5장에서 통전적 선교에 관해 여러 주제들을 다루면서 문제의식들과 함께 시대적 상황들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무엇보다 세계의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기술혁신의 빠른 속도는 세계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⁷⁰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속하고 SNS(Social Network System)를 통하여 소통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기에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과 신기술과 현대 경제 생활로 인하여 우리 삶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혀 새롭게 변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심지어 외딴 곳과 개발 도상의 나라들에 사는 선교사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급변하는 수송 수단과 커뮤니케이션 수단들로 인하여 지구가 이른바 “글로벌 빌리지”가 되어 가고 있다.⁷¹ 글로벌 언어들과 문화들이 확산되고 전 세계가 유례없이 글로벌화 되어가는 현상을 통해 세계가 상호 연결되고 이는 선교적 현장과 사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 전 세계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의 협력과 네트워킹 없이는 우리가 선교의 대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

⁷⁰ 김태원, *전문인 선교사를 깨워라* (서울: 이레서원, 2001), 112.

⁷¹ Kim, “A Contextualized Training Program for Twenty-First Century Korean Missionaries,” 153-154.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닐 것이다.⁷²

또한 세계는 빠르게 도시화되고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많은 경우에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 간격은 더욱 더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⁷³ 이러한 도시화가 교육과 주택, 빈곤과 위생, 빈민가와 환경적 차별에 관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부분의 도시가 다문화, 다인종, 다언어로 이루어져 있기에 도시화는 복음을 널리 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⁷⁴

세계는 계속하여 급변하고 있고 전세계 기독교계 선교 운동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중에 빼놓을 수 없는 새로운 선교 운동의 현상은 탈서구화와 탈식민지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서구인들이 여전히 의미 심장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서구 모델에 근거한 선교 운동은 이미 처음 운동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선교 운동의 흐름은 서구에서 나머지 세계로 옮겨졌다. 그리고 서구 교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⁷⁵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이 우리의 선교적 전략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고 한국교회를 향한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⁷² Ibid., 152-153.

⁷³ Lee, "Lay ministry," 60.

⁷⁴ Kim, "A Contextualized Training Program for Twenty-First Century Korean Missionaries," 55.

⁷⁵ Lee, "Lay Ministry," 66.

선교적 요청을 보다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들과 함께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형태의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교단적 배경들을 가지고 설립되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다양한 교단들에 의해 선교지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교단의 장벽이 허물어 지고 탈교단적 성격의 새로운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⁷⁶ 이는 선교가 한 교단이나 한 교회에서만 독보적인 사역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통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교회에서 파송했거나 선교 기관에서 파송한 전통적인 전문 선교사들의 숫자가 줄고 있다. 전통적이 전문 선교사들은 보통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선교 단체에서 파송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전통적인 전문 선교사들 대신에 단기 선교를 지향하는 평신도들이 늘고 있다. 이것은 가족적 고려와 재정과 같은 문제와 결부하여 적당한 단기적 헌신의 선교적 기회가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⁷⁷

장기적 선교의 헌신이든 단기적인 선교의 헌신이든 평신도는 전통적인 전문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출입 금지 나라들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는 평신도

⁷⁶ 김태원, *전문인 선교사를 깨워라*, 109.

⁷⁷ Lee, "Lay Ministry," 65.

선교사들은 그런 나라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전문 기술을 가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⁷⁸ 사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 특히 이슬람과 힌두교를 신봉하는 나라들은 기독교의 선교 활동을 제한하고 심지어 문을 굳게 닫고 있다.⁷⁹ 이러한 면에서 선교현장에서 전문인 선교사들이 계속 필요하고 계속 선교가 전문화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⁸⁰ 이러한 시대적인 현상과 흐름을 잘 파악하여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자신의 역할과 은사를 다해 선교적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것이다.

⁷⁸ Ibid.

⁷⁹ Ibid., 155.

⁸⁰ Ibid., 65.

제 III 장

통전적 선교에 대한 대안: 새중앙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관점의 통전적 선교

개인의 상황

한국사회는 산업화를 통한 양적인 발전에 집중해오면서 ‘더 크게, 더 많이, 더 빨리’ 라는 물질적 성장에 매달려왔다. 이렇게 균형이 무너진 성장은 사회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등 삶의 터전 이곳저곳에도 스며들었다.¹ 그 결과 오늘날 한국사회는 오직 대입을 목적으로 공부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10대 청소년들, 취업으로 힘들어하는 20대들, 자녀교육비와 가계의 부채 부담으로 삶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30-40대, 그리고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는 50-60대들의 어려운 삶의 현실을 보여준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재정립하는 발달과제를

¹ 정유성, “특집 2: 현대 한국 사회 - 가족, 교육; 밑에서 작게, 그리고 천천히 - 교육시민운동과 교육정치학,” *사회과학연구* 9 (2000), 118.

이뤄나가야 하는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경쟁을 먼저 배우고,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해야하는지도 깨닫지 못한채 자신만의 꿈을 꾸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청년들은 미래의 희망을 꿈꾸기보다는 취직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의 일부인 결혼, 친구, 여가 등을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 ‘N포 세대’²로 불린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은퇴는 빨라지고 수명을 늘어나면서 은퇴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에 정부도 위기에 흔들리고 있는 사회와 국민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개혁안들을 제시해왔지만, 국내외에서 몰아치는 위기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렇게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않는 현실은 사람들의 삶과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그 영향력은 사회와 교회로도 확산된다. 따라서 교회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을 주어야 한다. 교회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요소를 포함한 전인적인 목회를 지향해야하기 때문이다.³ 이에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교회가 통전적인 영성의 차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⁴

² 2015년 취업시장 신조어로, 어려운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취업이나 결혼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를 뜻하는 말. 시사상식사전, <http://www.pmg.co.kr> (2018년 2월 1일 확인).

³ 이혜숙, “중년기 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의 자기 심리학의 목회상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2004).

⁴ 허도화, “교회의 사회적 영성 회복 - 공동예배를 통한 사회화 훈련을 중심으로,” *신학과 선교* 50 (2017), 195.

한국 교회의 통전적 영성은 예배와 영성의 관계의 이해로부터 형성된다. 왜냐하면 예배는 개인적 영성, 공동체, 또는 사회적 영성을 모두 포함하는 통전적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영성은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닌 규칙적인 훈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예배와 영성훈련은 개인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⁶

개인의 통전적 선교

새중앙교회는 1983년에 개척된 이래로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을 통한 선교적 교회로 계속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 특별히 영혼구원의 사역과 예배사역과 제자훈련 등을 통한 개인의 삶의 영적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 모든 사역들은 말씀사역과 기도사역으로 정리될 수 있다. 말씀은 주일예배를 대표적으로 하는 대그룹말씀과 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말씀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에 더하여 모든 성도가 경건의 시간(QT)을 통하여 말씀을 매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회에서 자체 출판한 ‘해피투게더’ 큐티교재는 세대에 맞게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비전큐티’, 아이들을 위한 저학년용과 고학년 용의 ‘키즈 해피투게더’가 있다. 그리고 4-

⁵ 안선희,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실천신학적 성찰: 재사회화 통로로서의 예배갱신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7-1 (2010), 344.

⁶ 허도화, “교회의 사회적 영성 회복,” 195.

5주의 정규 과정으로 되어 있는 큐티학교의 강의를 통해 삶에서 큐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배는 주일 5부예배에 걸쳐 전통형식의 예배부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열린 예배형식의 예배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모든 예배위원들(성가대, 찬양팀, 안내, 주차, 새가족 영접 등)과 성도들은 힘쓰고 있다. 또한 개인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새가족반 5주과정과 성장반 10주과정, 그리고 제자반과 사역자반이 각각 3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 외에 제자훈련과정을 이미 이수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32주과정의 제자사명학교가 있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 바이블 아카데미를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실천신학의 분과등으로 구분하여 10개의 과목씩 개설하여 성도들의 신앙성장을 돕고 있다. 그리고 성인들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청년들의 경우는 연령과 관심분야에 따라 소그룹 모임인 구역이 형성되어 있고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의 신앙성장을 도우며 양육과 훈련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 시작된 새중앙 상담센터는 처음에 작은 컨테이너에서 시작된 이래로 놀랍게 발전하여 현재는 40여명의 전문상담가들을 통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인지 치료, 청소년과 성인 상담, 심리검사, 집단 상담 등 각종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상담건수는 연간 2만 3천 사례가 된다.⁷ 2004년에 개설한 심리상담 연구원을 통해 전문 상담사를 양성하고 있고 교회가 위치한 안양시와 여러 협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여러 상담대학원들과도 협약을 체결하여 전문적인 치유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자살이나 이혼 위기에 있는 사람들, 가정폭력의 피해 가족들과 동성애자, 성중독, 도박 및 게임 등의 중독자들과 다양한 사례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며 사역하고 있다.

전도학교의 경우 1998년 전도학교 1기가 시작되었고 보다 체계적인 전도의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전도용 소책자 ‘영생 얻는 길’을 주요 교제로 채택하고 개인전도와 노방전도, 외침전도, 축호전도, 어린이 전도, 병원전도 등의 다양한 훈련을 한다. 매년 2기씩 15년동안 30차례의 학교를 통해 1천8백여명이 훈련을 받았고, 전도를 위해 시간과 열정을 투자했다.⁸

전도학교와 함께 파워전도훈련이 있는데 파워전도훈련의 강령 ‘power 1.1.1’은 “한 사람이 한 주일에 한 명씩 전도하자!”라는 의미를 가진다.⁹ 훈련의 핵심은 말씀이다. 말씀이 핵심인 훈련을 통해 말씀을 이해하고 힘을 얻어 그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파워전도 양육은 보혈의 능력, 응답

⁷ 이바울, *30 새중앙교회 이야기* (경기: 로렘나무아래에서, 2013), 167.

⁸ Ibid., 58.

⁹ Ibid., 60.

받은 기도, 성령, 사단, 부활의 내용인 5단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에서는 20여개의 핵심 주제말씀을 정리해주고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5단계의 파워전도 양육 후에는 관계전도, 1분 메시지 전달법, 5분 메시지 전달법 등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실습한다.¹⁰

이에 더하여 교회는 다양한 중보기도 모임들을 통해 통전적인 선교를 이루어 가는데 영적 능력들을 공급하고 있다. 중보기도회는 월요중보기도회, 토요심야기도회,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인 레위기기도회, 그리고 24시간 릴레이 중보기도회 등이 있다. 자신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오지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한다. 자신의 가정을 위해, 다른 사람들 위해,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의 훈련을 받는다.¹¹

통전적 선교에서 개인은 매우 중요하다. 선교의 대상이 나 자신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고 나의 개인의 삶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으로 새로워진 나의 심령으로부터 선교가 이루어짐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적인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서도 안되지만 나 자신을 간과한 어떠한 선교적 노력들도 열매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선교적 삶과 교회를

¹⁰ Ibid., 61.

¹¹ Ibid., 106.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영적인 개인의 예배와 경건의 삶이 요구되어지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 끊임없는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특별히 개인의 선교적 삶을 강조하다보면 외적으로 드러난 신앙의 실천과 활동에 강조점을 두기 쉬운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영혼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닮아가는 내적 성숙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교적 사명으로 가치를 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개인의 영성과 성숙의 강조를 넘어서 삶의 실천적 결단과 적용이 중요함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신앙생활의 영적 균형감을 잃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차원이 보이는 실천적 순종의 삶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는 강력하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

가정의 상황

가족은 사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로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영역이다.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정보화와 같은 급격한 사회의 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만들어주었고, 이에 따른 혼란과 갈등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¹²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가족의

¹² 박부진, “특집2: 현대 한국사회 - 가족, 교육; 한국사회의 이론실태와 이혼가족의 문제,” *사회과학연구* 9(2000): 84.

유형과 구성요소 등에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결혼을 하는 연령이 상승하였고, 출산율은 감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증가, 미혼모의 증가, 독신자의 증가, 다문화 가정의 증가, 혼전 성관계의 보편화 등 가족의 요소들의 변화가 있었다.¹³

이러한 변화와 함께 현대의 가정들은 부부의 갈등과 이혼, 청소년비행, 노년층의 극심한 소외 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통계청¹⁴에 따르면, 2015년에 이혼건수는 10만 9천 200건이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전체 이혼의 48.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이혼의 문제가 단순히 부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안정된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성년자 자녀들에게도 위기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의 정서, 인지, 행동, 대인관계와 학교생활 등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위축, 소외감, 죄책감, 불일치감, 욕구 좌절 등으로 나타나며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¹⁵

또한 가정안에서의 갈등은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로 자아칭제감에 혼란을 경험하게되는 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일차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가정의 환경요인은 빈곤, 부모의 양육태도, 부부갈등,

¹³ 이현송, “우리사회의 가족 어디로 가고 있나,” *보건복지포럼* 115 (2006, 5) 56-63.

¹⁴ 통계청(2015). <http://Kostat.go.kr> (2018년 2월 1일 확인).

¹⁵ 이현주, “이혼가정아동을 위한 사회적 문제해결 향상 집단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2017).

부모의 이혼과 학대 등이 있는데,¹⁶ 이렇게 가정내에 부부 갈등이 있는 자녀가 화목한 가정의 자녀보다 정서적 행동적인 문제가 2배에서 5배까지 많아지며,¹⁷ 이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정의 통전적 선교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 그리고 교회학교의 프로그램들과 소그룹 구역모임 등을 통해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 뿐만이 아니라 선교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많은 불신자 가정들을 향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상담 프로그램들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에는 수요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 자녀교육에 대한 주제에 맞는 강연자들이 강의와 말씀을 전하고, 함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경적 자녀양육은 무엇이고 자녀의 내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올바른 자녀 훈육과 부모교육 등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이 세상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녀를

¹⁶ 이연옥, “부모의 방임, 부부갈등 요인이 중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 자아 탄력성의 조절변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6).

¹⁷ N. Richman, J. Steavenson and P. J. Graham, *Pre-School to School: a Behavioral Study* (London: Academy Press, 1982).

맡긴다. 성도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새중앙 아버지학교는 가정의 문제는 곧 아버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서고, 가정이 바로서야 사회가 바로서며, 사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가치관과 목표를 가진다.¹⁸ 성경적 아버지상을 배우고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켜 한 가정에 아버지를 바로 세우는 것이 목표이다. 1998년부터 두란노 아버지학교 지역연합의 사역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2006년부터는 독립하여 ‘새중앙 아버지학교’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국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섬겨오고 있다. 100프로 평신도 중심의 남성사역으로서 매주 기도모임과 헌신자스쿨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로 무장하여 매번 놀라운 간증들이 풍성하다. 아버지들의 회복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고 많은 불신자들이 아버지학교를 통하여 신앙을 갖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 할 수 있다. 강의 내용은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 아버지의 사명과 영성 등이 있다.¹⁹

어머니학교는 1987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부부생활 워크샵이 발전하여 1999년부터 ‘가정의 회복은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되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한

¹⁸ 이바울, *30 새중앙교회 이야기*, 170.

¹⁹ Ibid., 172.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정체성을 세우고, 한 가정의 성경적 어머니의 모습을 배운다. 5주동안 진행되며 강의내용은 여성상의 회복, 어머니의 영향력, 행복한 아내, 의사소통, 용서와 치유 등으로 이루어진다.²⁰ 그리고 뜨거운 기도회와 애찬식, 세족식 등의 교제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머니들은 놀라운 회복과 치유,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가정의 회복이 목회자나 선교사의 가정을 간과할 수 없기에 2002년부터는 목회자 및 선교사 부부학교를 통하여 목회자와 선교사 가정의 많은 회복과 변화들을 이루어내고 있다. 목회자의 가정이 아프면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선교사의 가정이 병들면 선교의 사역은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진다. 목회자와 선교사 가정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중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현재는 국내 목회자 가정, 국외 현지에 있는 본국 선교사 가정, 안식년 및 일시 귀국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위에서 언급한 새중앙 상담센터는 성도와 이웃, 그리고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가정까지도 여러 회복학교와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섬기고 있다. 그 밖에 다음장 4장에서도 자녀양육에 관한 것이나 세대별 특성에 맞는 사역들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의 선교적 사역의 대상은 개인을 넘어서 가정에까지 분명 도달해야

²⁰ Ibid., 175.

한다. 보통 사역이라고 말할 때 교회의 사역을 말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사역의 지경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땅끝은 미지의 영역이전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과 관계를 이루고 있는 가정을 간과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 각자가 속한 가정과 우리 이웃의 가정들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적 사역의 현장임을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게하는 통적적 선교를 이루어 갈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의 가정들은 다양한 위기의 문제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지만, 기독교 가정은 자녀들에게 신앙과 경건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교육의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도 이 세대와 다음세대를 하나님의 일꾼들로 훈련시키고 양육해야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오늘날 가정의 어려움과 위기가 예배와 교육을 통하여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사역을 감당해야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회는 가정을 돕고,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제공하여야 하는 가정을 향한 사명이 있는 것이다.²¹ 부모의 교육은 기독교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으며, 기독교 가정이 바로 설때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 사회가 건강해지고 지역과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²¹ 이기복, “신앙교육의 터전, 가정과 교회,” *교육교회* 379 (1982), 14.

교회는 힘써야 한다.

일터와 지역사회의 상황

OECD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근로자들의 평균 주 43.6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상위에 속한다. 하지만 직무만족도는 최하위이며 직무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의 비율은 최상위이다.²² 직장인들의 행복지수는 일하는 시간만큼 높지않다. 직업과 일에 대한 열정과 희망보다는 무기력과 만성피로, 두통, 신경성 위염 등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2017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 76.3%, 여성 88.2% 등 직장인 10명중 8명(82%)가 회사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리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보고한다.²³

또한 직장인들은 개인이 직무와 조직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 중에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욕구 사이에 일어나는 불균형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²⁴ 이와 같은 직무 스트레스는 직장인들이 심리적으로는 긴장과 불안, 우울,

²² 삼성경제연구소,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 3.3 전략,” *SERI 경영노트 70* (2010).

²³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04_0000194382&cID=10201&pID=10200# (2018년 2월 1일 확인).

²⁴ 장세진,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직무 스트레스의 관리,” *한국산업간호협회지 12-3* (2005), 25-31.

주의력부족, 낮은 자기효능감, 동기 결여, 성적 역기능 등을 경험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수면장애, 암, 당뇨병, 두통, 척추장애, 소화장애 등 까지도 관련이 있어 개인의 신체와 심리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따라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실제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가정, 지역, 심지어 국가에도 광범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게 된다.²⁶

교회는 모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흠어지게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삶속에서 교회가 되어 모든 차원과 지평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성을 드러낼 수 있게 해야한다.²⁷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 선포의 사역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를 자유케하는 사회적 정의를 이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섬기는 사역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가르치시고 통전적 선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²⁸ 그러나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이 현대 사회의 현실은 스트레스와 불균형으로 가득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와 영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²⁵ 송민정,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²⁶ 왕은자, 전민아, 홍희정,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7-5 (2016), 487.

²⁷ 최동규,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본 교회,” *선교신학* 36 (2014), 327-353.

²⁸ 김수미, “통전적 선교-복음선포와 증명의 조화,” *복음과 선교* 29 (2015), 11-46.

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영향력이 미치게 하는것을 힘들게 한다. 선교는 먼 곳에 가서 타문화권 현장에서 감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는지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를 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그리스도인들의 일터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곧 지역사회는 선교적 교회가 돌보며 가야하는 선교지라고 할 수 있다.

일터와 지역사회의 통전적 선교

교회에서는 일터와 지역사회의 직장인들을 돕기위한 직장인 학교와 실업인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학교는 주일에만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아닌, 직장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목표를 자기고 ‘B as M (Business as mission)’ , 즉 직장이 곧 선교지라는 구호를 가지고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직장의 복음전파를 위해서 직업의 소명, 직업과, 성공관, 재물관, 직장윤리등의 전문적인 훈련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직장 사역자를 배출한다.²⁹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직장인 학교의 가지라고 할 수 있는 실업인선교회는 실업인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교회의 목회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기업윤리를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²⁹ 이바울, 30 새중앙교회 이야기, 72.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것을 궁극적인 사업의 목표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³⁰

한편, 교회에서 운영하는 로템카페에서는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음료와 스낵을 제공하며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주일에는 새가족들이 교구목사와 만나는 장소로 사용되며 많은 성도들이 이용한다. 평일에는 많은 이웃 주민들이 방문하며 지역의 대표적인 만남과 쉼의 장소가 되었다. 선교관에 머무시는 선교사님들에게는 무료로 음료와 스낵이 제공되며 로템카페의 수익금은 세계선교를 후원하는 일에 사용된다. 그리고 로템카페 한쪽에는 누구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아트로템 갤러리가 있다. 작은 공간이지만 순수미술, 수예작품, 한지공예,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해왔다. 로템카페를 오가는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비전센터 2층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로템 식당이 있는데 많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고 선교사님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³¹

그리고 새중앙 문화아카데미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약 200여개의 강좌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수강생들이 교인이 아닌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주민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게되고 복음을 접하게 된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강좌들이 있으며, 외국어 회화,

³⁰ Ibid., 74.

³¹ Ibid., 289.

교과수업, 체험교실, 실용음악 등의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다. 계절별로 수강생을 모집하며 매년 새로운 강좌들을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³²

그리고 교회는 장애전문어린이집인 ‘새중앙 장애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 입학식을 시작으로 안양시에서 장애아 전문 보육시설로 지정받았다.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영역으로 구성된 보육 프로그램을 균형있게 진행하고 있다.³³ 또한 위에서 이미 언급한 새중앙상담센터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삶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 가정폭력, 따돌림, 중독, 동성연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데 안양시 청소년지원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교육청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다.

이렇듯 일터가 선교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일터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면 선교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본질로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제자도이면서 선교적 삶을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신앙의

³² Ibid., 281.

³³ Ibid., 193.

갈등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고 다양한 은사들과 재능, 전문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줄 때 교회는 보다 역동적인 선교적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성도들을 전문성에 따라 구별된 모임들에 소속되어 말씀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선교적 부르심들을 고민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보통 지역중심에 기반하고 있는 소그룹 체계를 은사 중심의 소그룹과 병행해서 이루어가는 것도 자신들의 은사적 자원들을 발휘하도록 돕는 길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와 늘 소통하며 축복이 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선교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어떠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선교사가 있는 지역과 영혼들에게 반드시 유익과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지역의 교회들은 그 지역에 존재함으로써 지역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기관들과 연계된 사업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다른 단체들이나 지역사회의 어느 곳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라 하더라도 교회는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축복의 통로로서 교회가 지역에 영향을 줄 때 직간접적인 선교의 열매들은 아름답게 거두어 질 것이다.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해

인식하고 구체적인 사역전략들을 구상하고 지역의 소외된 영혼들을 돌보고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곳과 영혼들에게 한마음으로 다가갈 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지역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

북한과 한반도의 상황

북한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지만, 한민족임에도 서로 만날 수 없는 가장 먼 곳이기도 하다. 독재와 분단, 전쟁, 자연재해로 고통받지만 여전히 폐쇄되어있어서 그들을 도울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북한은 오랜 기간 식량난으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것은 탈북사태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탈북민 문제, 정치범수용소 문제, 정치적 폭압과 강제적 탄압 등의 인권문제들은 국제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 유엔연합 등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결의서가 채택되었고, 일본과 미국에서는 북한의 인권법을 제정하려는 모습도 보여준다. 이러한 북한의 인권문제 등으로 탈북한 탈북민은 2016년에 29,137명으로 추정된다.³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북한 인권 침해 사례집’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으로 구성된 책으로 북한에서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침해뿐

³⁴ 허성업, “통일 관계에서 본 북한선교 정책전략: 북한의 인권과 탈북민 문제를 중심으로,” *선교신학* 42 (2016), 323-358.

아니라 의식주에 있어서도 자유가 허락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³⁵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곳인 북한은 한 민족이지만, 오랜 기간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으며 이념, 사회와 체제, 문화가 우리와 서로 너무도 다르다. 이에 북한선교를 위한 전략을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이 차이가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여러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선교를 위해 한국의 문화의 틀이 아닌 타문화 관점의 선교적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즉, 북한 주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탈 주민을 이해해야하며 이것은 북한선교의 전략에서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북한에는 6.25 전쟁전까지 3,040개의 교회가 있었고,³⁶ 지금은 수많은 성도가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 한국 교회는 북한의 교회를 재건해야하며,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북한주민과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며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북한 성도들을 위해 돕고 기도해야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북한과 한반도의 통전적 선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북한선교회는 새터민(북한 이주민에 대한 정부 공식

³⁵ 조은식, “탈북자를 위한 중국교회의 역할,” *선교신학* 41 (2016), 406-409.

³⁶ 강승삼, *한국교회의 새로운 도전 전방개척선교* (서울: 한선협, 2005).

호칭)의 복음화와 영적지도자 양성을 통한 북한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³⁷ 말씀안에서 잘 양육된 새터민은 다른 새터민에게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또는 여러 나라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선교를 할 수 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탈북자들과 북한선교에 관심을 갖는 많은 성도들이 스텝으로 동참하여 협력하고 통일의 날을 기대하며 기도로 무장하고 있다. 매년 진행되는 북한선교학교를 통해서도 북한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헌신하는 기회를 가진다.³⁸ 북한 체제와 탈북민이 가질 수 있는 트라우마와 불안을 이해하며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데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문 강사진들의 강의를 통해 통일한국의 비전을 향한 나아가도록 돕는다.

그리고 매년 북한선교학교를 통해 성도들을 북한 선교에 관한 비전을 품게 하고 통일한국을 실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도전과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그리고 북한선교학교뿐만 아니라 단기선교학교, 이주민 선교학교 등의 다양한 선교학교 훈련들을 통해서도 북한선교에 관한 비전과 도전을 함께 나누고 있다. 또한 교회 안의 청년공동체인 비전공동체에서는 남한과 북한을 각각 6개도로 나누어 남한은 아웃리치를 실시하고 북한은 교구별로 분담하여 중보기도로 품고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서부전선 최전방 GOP부대와 연합하여 매달 아웃리치를

³⁷ 이바울, *30 새중앙교회 이야기*, 232.

³⁸ Ibid.

실시하고 군장병들과 함께 예배를 섬길 뿐만아니라 소그룹모임을 진행하고 통일한국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그 밖에 교회에서 시작된 NGO ‘돕는 사람들 (Good Helpers)’ 을 통해서 국내외 다양한 사역과 함께 북한 어린이를 돕기위한 의약품 지원과 영양 및 환경개선 물자 지원 등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계획속에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열방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심이 진행되어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남과 북이 하나되어 분단의 세대를 넘어 통일의 세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북한의 복음화는 우리 민족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인 동시에 모든 한국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복음적인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준비하되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성도들과 교회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선교적 공동체들과 함께 연합하여 통일을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문화를 탈북자들과의 사랑의 연합을 통해 배워가고 이미 북한과 왕래가 가능한 중국과 조선족들과의 지혜로운 연합사역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 통일에 관한 성경적이고 상황적인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통일세대의 주역이 되도록 협력해감이 중요할

것이다. 교회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한 교육과 통일에 관한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고 북한과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연구와 교회안에서 실질적인 선교적 도전들을 통해 통일을 위한 선교적 자원들을 연합하여 일으킬 필요가 있다. 북한과 한반도의 복음적 통일을 위한 강력한 기도와 지혜로운 실천적 준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통일의 세대를 축복으로 받게 되는 마중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디아스포라와 세계 선교의 상황

세계선교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우선순위적인 사명이다. 대표적으로 로잔운동은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인 27억명 이상(1974년도 기준)이 아직 복음화되지 않았기에, 세계복음화는 온 교회의 가장 시급한 선교적 과제임을 호소해왔다.³⁹ 그러나 어떠한 운동이나 구호로써가 아니라 세계선교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 선명히 보여지는 하나님의 엄위한 명령이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앞의 2장에서 통전적선교에 대한 신학적관점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과업을 통전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계선교는 오늘날 디아스포라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³⁹ 김미선 "디아스포라 선교이해와 전략: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global diaspora network, GDN)를 중심으로," *선교신학* 39 (2015), 53.

있다.

“디아스포라(diaspora)”는 그리스어로 ‘흩어짐(scattered)’에서 유래한다.⁴⁰ Hancile는 디아스포라 현상이 “초국가적 이주”로 이주자들의 새로운 사회의 참여와 이중언어 사용으로 문화 사이를 쉽게 이동하고, 이중생활을 이끌어 두 나라에서 사회적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명한다.⁴¹ 이와 같이, 디아스포라 선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 선교와는 달리 비자가 필요없고, 어디든 갈 수 있으며, 법적인 제약이나 불필요한 경쟁이 없고, 주변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광대한 기회가 있는 강력한 전인격적인 협력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이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디아스포라 현상은 복음으로 보다 쉽게 접근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민족들을 흩으셨지만, 그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다.⁴³ 이러한 디아스포라 현상을 이해하고 일방적인

⁴⁰ Narry F. Santos, “Exploring the Major Dispensing Terms and Realities in the Bible,” Global Diaspora Missiology Consultation, Alberta, Canada (2006. 11).

⁴¹ Jehu J. Hanciles, “Migration and Mission: Some Implication for the Twenty first Church,”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27-4 (2003), 146-153.

⁴² Sadiri Joy Tira, “Diaspora Missiology,” Global Diaspora Mission Consultation, Seoul, Korea (2008. 8), 29.

⁴³ 한권식,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전략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영산신학대학원, 2009).

선교가 아니라 함께 하는 파트너십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지역교회는 디아스포라로 사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성경적인, 그리고 교차문화적인 훈련을 통해 세계선교의 사역적 지경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⁴⁴

디아스포라와 세계 선교의 통전적 선교

교회는 새중앙선교훈련센터 SMTC (Saejungang Mission Train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는 선교사역이 전문인 사역으로 더 체계화되고 전문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기관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전문분야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훈련하여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협력하고 있다. 우선 12주의 훈련과정을 통해 성격적 관점의 세계관, 각 나라별 문화 차이, 선교의 역사, 최근의 선교 현황, 미전도 종족 선교, 지역교회의 역할, 팀 사역과 갈등 문제, 전문인 선교 준비와 실제, 선교 공동체의 위기 관리법 등을 교육받는다.⁴⁵ 그리고 ‘자비량 해외현장훈련’을 팀별로 1-2주일 동안 여러 나라로 떠나, 실제 선교현장에서 전문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각 성도들을 자신의 달란트와 직업을 통해 평신도 선교사로 설 수

⁴⁴ 김미선, “디아스포라 선교이해와 전략,” 60.

⁴⁵ 이바울, 30 새중앙교회 이야기, 225.

있도록 돕게 된다. 그리고 이를 마친 졸업생들에게는 교회가 인증하는 선교사 인증서를 수여한다.

새중앙 선교센터인 ‘킹덤미션센터’는 선교관을 통해 해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방문하거나 귀국해서 일정기간 숙식을 무료로 지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실, 2인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64개의 객실과 만남과 쉼이 있는 카페, 발마사지실, 힐링센터, 의료진료실, 세미나실, 어린이 놀이방 등이 있다. 그 밖에 리넨실, 부티크실, 세탁실 등의 테마방이 있는데, 특히 부티크실은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사계절 옷들을 적절하게 골라 입을 수 있는 공간이다. 옥상에는 하늘정원으로 꾸며져 있어 선교사들에게 쉼과 교제를 제공하고 있다. 아침식사는 성도들의 섬김으로 선교센터 내의 별도의 카페에서 제공되고, 점심과 저녁은 교회의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로템나무카페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교회의 다양한 예배에 자유롭게 참여함으로 영적인 충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선교센터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섬김프로그램들이 있다.

선교사들은 교회에서 진행되는 중보기도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전도 세미나, 큐티세미나 등의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발사랑선교회에서 제공되는 발마사지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으며, 새중앙문화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발사랑선교회,

원적외선 산소방, 신경마사지, 의료선교회, 탁구선교회등을 통해 건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평신도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를 통해 선교사님들을 섬긴다. 사진선교회, 이미용선교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식당을 오픈하여 대접하거나 세탁, 헌물 기증, 교육 제공 등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긴다. 그리고 세종양 상담센터에서는

‘선교사부부행복학교’를 진행하여 부부와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돕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디아스포라 현상과 관련된 선교활동으로는 교회안의 외국인선교회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외국인선교회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다양한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각 나라별로 예배를 제공하고, 말씀으로 교육함으로 역파송한다. 이는 그들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선교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선교회는 근로자, 다문화가정, 유학생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복음, 전도, 훈련, 파송’을 목표로 한다. 베트남 근로자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자들로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들은 새가족으로 등록된 뒤 기본교리, 제자훈련, 신학훈련, 선교훈련의 2년과정을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를 통해서 복음을 들고 베트남으로 돌아가 7명의 현지

선교사를 배출하고 5개의 베트남 지교회가 이미 생기게 되었다.⁴⁶ 제자훈련, 직장예배, 인터넷 선교 프로그램, 심방과 교제에 힘쓰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회복과 정착을 위해서는 베트남어학당 등을 진행하고, 예배시간에 통역기를 제공하여 한국 남편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선교회의 경우에는 세계 최다 이슬람 인구가 있는 인도네시아의 선교를 위해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근로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의 영육의 회복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경 공부와 전도 훈련으로 양육하며 선교사로 역과송하는 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다.⁴⁷ 또한 몽골선교회는 몽골 이주민과 단기간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힘쓴다.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며 몽골의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회를 가진다. 그리고 전통명절에는 전통 음식을 만들어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와 함께 중국선교회에는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1단계 전도, 2단계 새신자교육, 3단계 성장반, 4단계 제자반, 5단계 사역자반, 6단계 파송의 6단계의 훈련과정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한 ' 50개 구역예배, 중국내 50개 지교회, 50명의

⁴⁶ Ibid., 234.

⁴⁷ Ibid., 240.

선교사 역과송'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다.⁴⁸ 그리고 중국인 2세들을 위한 중국어주일학교를 만들어 신앙을 교육하고 있다. 한편, 중국동포선교회는 매 주일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동포끼리 모여 지낼 쉼터를 제공하며 이곳은 숙식과 짐 보관, 예배와 교제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쉼터를 이용할 때 원칙은 새벽예배와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에 익숙하게 된다.⁴⁹

그밖에 가장 최근에 시작된 일본선교회는 일본인 유학생과 국제결혼 부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매주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본인들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인원이 함께 동참하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영어권선교회는 장년예배와 어린이 영어예배로 나누어져있으며, 영어권 현지인, 교회 성도들, 그리고 선교센터에 머무르고 있는 선교사 가정 등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선교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교회는 이주민선교학교를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이주민선교에 대한 성경적이고도 시대상황적인 교육을 하여 세계선교를 위한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함께 선교사역에 동참토록 하고 있다. 이주민들을 이해하고

⁴⁸ Ibid., 237.

⁴⁹ Ibid., 239.

섬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훈련한다. 그리고 유학, 국제결혼, 취업 등으로 한국에 오게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도 함께 선교에 대해 교육하기도 한다. 이주민선교사역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의와 이주민 전도전략과 사역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워크숍, 이주민들을 위한 중보기도 등을 진행하고 함께 이주민 선교에 관해 중점적으로 배우고 훈련한다. 그리고 특별히 2017년 6월에는 새중앙교회 34주년을 맞아 ICDM (International Center for Diaspora Mission)이 설립되어 세계 디아스포라 선교에 관심을 갖고 많은 선교전문가들과 실행가들과 함께 다양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다.

지난 한 세기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들을 전세계에 흩으셔서 디아스포라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영적 자원으로 사용해가셨다. 수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전세계에 파송되어 선교활동을 펼칠 뿐 아니라 선교사들의 자녀들 또한 이미 성장하여 많은 곳에서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한인교회들이 세워지고 한인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위치한 지역과 그 지역을 넘어 근장거리에 있는 선교지까지 섬기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디아스포라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적 청사진을 함께 보며 협력하여 세계선교를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 개 교회나 개 교단 중심의 선교전략을 넘어서서 다각도적인 연계와 협력으로 효율적이고도 건강한 선교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각자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작은 프로젝트에서부터 규모있는 어떠한 선교전략과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협력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는 더욱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어가게 될 것이다.

세대 관점의 통전적 선교

세대간의 단절과 자녀교육의 상황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집단으로 지역과 사회의 잠재적인 힘이다. 이 잠재적인 힘은 사회와 국가로 영향력을 주며 유지하게 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한다. 급격한 산업화와 현대화를 통해 가족도 급격한 변화를 겪어오면서 가부장적 권위는 무너지고, 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규범의 출현으로 가족 구성원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갈등이 늘어나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⁵⁰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갈등은 세대간 결속력을 약화시키며 가족간의 상호 이해의 통로를 붕괴시켜 가정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되어 하나님의 꿈을 꾸는 모습은 뒤로 물러나고 세대간의 단절과 갈등이 지속되는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

⁵⁰ 이창덕, “한국 가족의 의사소통 문제와 개선 방안,” *화법연구* 9 (2006), 352.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지나친 자녀교육으로 인해 자녀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이는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아이에게 교육때문에 폭언을 하는 부모들이 늘고 부부간의 불화로 이혼하게 되는 사례도 있다.⁵¹ 이렇게 삶을 파괴할 만큼의 결과를 초래하는 지나친 자녀교육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불러온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현대의 기독교 가정의 신앙교육의 위기도 함께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한 참된 일꾼을 길러내야 하지만 자녀들의 교회이탈현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 신앙인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데, 부모에 대한 실망은 교회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⁵² 이에 가정에서의 부모의 올바른 역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가정을 도우며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역들을 함께해 든든한 가정을 세우고 부모세대뿐만이 아니라 자녀교육에도 함께 힘써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부모세대와 청년세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인 자녀세대가 말씀안에서 성숙한 주님의

⁵¹ 세계일보,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 고통. 부부갈등은 이혼사유,” 2016년 2월 19일자.

⁵² 김형길, 김재균, and 김영숙, “어린이 신앙교육의 가정과 교회 협력 방안: 자기결정성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로고스경영연구* 14-2 (2016), 182.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야 말로 교회가 해야하는 교육의 사명이며 선교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³

세대간의 단절과 자녀교육의 통전적 선교

교회는 세대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성경적인 자녀교육과 전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이루어가는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다. 앞 장에서 언급했던 수요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통해 성경적 자녀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말씀나눔과 기도회를 통해 신앙의 세대적 계승을 이루어 가고 있고, 아버지학교와 어머니학교를 통해 가정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세워가고 있다. 특별히 교회학교를 단지 성인과 구별되는 별도의 부서가 아니라 성인과 청년공동체와 함께 교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어린 자녀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일치된 목양의 대상과 선교적 주체로 세워가도록 하고 있다. 교회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성인 및 청년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교회학교에도 목양장로들을 배치하고 전세대가 함께 긴밀히 연계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쳐가도록 하고 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전세대 큐티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영아부터 유아부는

⁵³ 이재완, *교회와 선교 교육*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14.

별도의 큐티책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와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권면한다. 6-9세를 위한 큐티교재인 ‘키즈 해피투게더’ 저학년 버전과 10-13세를 위한 ‘키즈 해피투게더’ 고학년 버전이 제작되어 아이들의 큐티를 돕고,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공동체인 비전공동체를 위해서는 ‘비전큐티’를 제작하고 있다. 성인들은 ‘해피 투게더’를 통해 큐티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회학교의 큐티훈련을 포함한 전세대 큐티를 통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가정예배까지 이어지도록 돕는다. 모든 큐티책들은 매일 같은 본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세대가 함께 한 말씀안에서 나눔이 가능하다.

특별히 모든 세대에서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교회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품태교학교를 통해서 아기의 성품이 태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약 6주의 과정으로 임신한 부모를 교육한다. 영성교육을 포함한 정서적, 육체적 필요에 대한 교육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22-40개월 아이들을 대상으로 5주 프로그램의 아기학교를 진행한다. 부모와 함께 교감하고 체험학습을 통해 오감발달을 도우며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푸른새싹 제자학교’를 통해서 4-5세 아이들을 가정과 밀접하게 연관하여 가정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4주 프로그램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의 미션을 집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에서의 성경교육이 가정예배로 이어지도록 도우며, 마지막

시간에는 세족식을 통해 부모공경을 훈련한다.

그리고 ‘푸른나무 제자학교’는 6-7세 아이들의 제자양육 프로그램으로 성경말씀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적극적으로 배우게 한다. 이에 더하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연합으로 제자양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좋은열매 제자학교’를 통하여 6주 동안 매일 큐티와 기도생활 실천을 훈련한다. 어릴때부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도록 도우며,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예를 들어, 마지막주에는 직접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 전도학교는 좋은열매 제자학교의 전도자 과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 중심이다. 이를 위해 매주 전도를 실습한다.

중등부 제자학교의 경우 예배, 성경, 선교 교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교육한다. 출석, 암기, 기도, 통독, 예배, 큐티, 생활숙제 등의 과제들을 통해서도 훈련시키는데 학생들이 이 과제들을 삶에 잘 적용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권면한다. 고등부 제자학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의 확신을 가진 제자로 세워지도록 양육하는데 소그룹으로 진행할 때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학생들의 의구심을 말씀안에서 해결해나가도록 돕고 교제를 통해 공동체성을 키우게 한다.

세대간 연합을 위해서 성인교구의 경우 지역별로 젊은부부모임, 실버구역모임 등을 따로 조직하여 세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역들을 진행하는

동시에 젊은부부모임은 비전공동체의 신혼부부모임 구역과 연계하고, 실버구역은 장년세대와 비전을 공유하며 세대와 세대가 연계하여 미래사역을 준비한다. 성인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세대간 통합 구역장 성경공부를 진행하여 세대간 이해와 연합을 돕기도 하고, 전세대아웃리치, 그리고 절기예배, 전도축제와 같은 교회의 다양한 행사들을 장년교구와 비전공동체, 그리고 교회학교가 연합하여 진행함으로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전세대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전적 선교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도록 하고 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속에 자녀세대와 청년세대, 그리고 부모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선교적 꿈을 꾸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선교적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예배의 현장에 모든 세대가 함께 동참할 필요가 있고 전세대에 걸쳐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장이 필요할 것이다. 그 예배의 현장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울타리를 넘어선 삶의 어느 현장일 수 있다. 전문성있는 교육을 강조할 때 세대간의 분리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세대간 통합양육과 훈련, 그리고 세대간 통합된 소그룹과 대그룹 예배모임도 필요할 것이다. 선교를 이루어갈 때 지역적 개념에 머물지 않고 세대적 개념의 접근을 시도할 때 우리의 선교는 과거 서구교회의 몰락을 따라가지 않고 한 세대를 넘어선

지속적인, 그리고 보다 발전적인 선교적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가. 어린이(영유아, 유치, 유년, 초등)의 상황

한국교회의 성장 둔화와 함께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회학교 학생수는 계속 줄어 이제는 교회의 약 45-50%가 교회학교 유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⁵⁴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율의 저하로 어린이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요인도 있다.⁵⁵ 하지만 부모의 신앙교육의 중요성 인식 부족도 원인으로 지적된다.⁵⁶ 요즘의 아이들은 가정이나 교회학교보다 외부 교육기간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이는 세상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OECD 23개국 중에 한국은 ‘2011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에서 3년 연속 꼴찌를 하였다.⁵⁷ 초등생 53%가 가출충동을, 27%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해 인터넷과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결과도 있다.⁵⁸

어린이들은 미래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교회는 이들의

⁵⁴ 한춘기, *교회교육 교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4), 194.

⁵⁵ 장화선, “우리나라 교회교육의 회복을 위한 방안: 어린이 및 청소년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성경과신학* 75 (2015), 267.

⁵⁶ Ibid., 272.

⁵⁷ 조은하, “‘어린이, 청소년 없는 교회’, 현실로 다가오는가?” *기독교사상* 653 (2013. 5), 18.

⁵⁸ Ibid., 19.

영적성숙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한다. 아직은 미숙하고 약하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좋은 나무로 성장해 좋은 열매를 맺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잘 가꾸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교회는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을 인격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가정과 협력하여 함께 신앙교육에 힘써야 한다. 특별히 주일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교회학교는 어린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고 예배를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성경의 지식을 배워 신앙을 가짐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어린이(영유아, 유치, 유년, 초등)의 통전적 선교

새중앙교회의 어린이 예배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아부와 유치부,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영아부는 0-2세반과 3-4세반으로 부모 교육과 예배 교육에 중점을 둔다. 부모에게 아기가 믿음으로 자라야 함을 교육하며 부모와 아기가 한자리에 앉아 예배드린다. ‘예배시간에는 먹지 않습니다,’ ‘예배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예배시간에는 떠들지 않습니다’ 등을 예배를 통해 교육하고 부모와 교사가 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준다.⁵⁹ 그리고 이를 통해 참 예배자인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것을 함께 교육한다.

유아부는 4-5세 아이들의 예배로 예배 과정을 가르치며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설교와 분반공부뿐만 아니라 생활 교육도 함께 병행한다. 그리고 유치부는 취학 전 6-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맞추어 더 쉽고 재미있게 성경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교제와 프로그램으로 섬기고 있다. 여름성경학교와 성탄절 생사는 가장 큰 행사이며 어린이 제자학교인 ‘푸른나무학교’와 성품교육을 진행한다.⁶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는 다양한 예배와 활동,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음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있어 이 시기 작은 사회를 경험하면서 신체및 정신적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놓쳐서는 안되는 시기이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유년부, 3-4학년은 초등부, 그리고 5-6학년은 소년부로 나뉘어 3개의 부서로 운영되는데 유년부에서는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양육함에 집중하고, 초등부는 성숙한 예배와 선교사적 꿈을 꿀 수 있도록, 소년부는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⁵⁹ 이바울, 30 새중앙교회 이야기, 125.

⁶⁰ Ibid., 133.

훈련에 힘쓴다.

또한 3개의 부서가 연계해서 여러가지의 공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 예배자학교, 좋은열매제자학교, 새봄어린이부흥회, 성가 합창제, 키즈해피투게더 큐티 공부 등이 있다.⁶¹ 예배자학교는 아이들이 참된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훈련하고, 제자학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공동체활동 등을 통해 신앙을 다지고, 성품 교육 및 전도훈련을 진행한다. 어린이부흥회는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기 전 두려움을 성령의 체험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준다. 또한 성가 합창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큐티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일상속에서도 말씀을 꾸준히 읽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가정예배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밖에 6주과정으로 매년 2회 진행되는 성품태교학교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자’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임신부들이 두려움이 아닌 성령 충만한 행복한 출산을 맞이할 수 있게 한다.⁶² 그리고 아기학교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은 18-36개월 아기들이 엄마와 함께 참여하는 놀이활동 프로그램이다. 놀이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신앙적 프로그램을

⁶¹ Ibid., 138.

⁶² Ibid., 125.

제공한다.⁶³ 또한 아이들의 연령대를 막론하고 각 부서에 헌신된 교사들은 새로운 반과 학생이 배정이 되면 부모와 상담전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와 가정의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며 소통에 힘쓴다.

어릴 때의 신앙이 제대로 잡힐 때 청소년기와 청년기, 그리고 성인이후의 신앙도 견고해질 수 있다. 그런데 어린시절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도 함께 연계되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일의 신앙교육만이 아니라 평일에 이루어지는 가정의 교육과 학교의 현장에서의 신앙훈련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의 교육과 초등학교안에서의 신앙공동체를 통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일학교 교사들과 신앙을 가진 초등학교 교사들의 연계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이고 전문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특별히 시대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 이를테면 아이들의 성교육과 창조론교육, 그리고 통일에 관한 선교적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전인적인 신앙의 교육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의 상황

청소년기는 부모에게 의존했던 단계에서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이다. 과도기적 단계인 청소년기는 학업과 진로,

⁶³ Ibid., 126.

가족관계, 친구, 이성, 신체발육 등의 다양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혼란과 무기력, 외로움과 좌절감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어떤 시기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⁶⁴ 신체의 급격한 변화와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대한 탐색을 시작하게 되면서 정체감의 위기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위기의 시기에 현대의 청소년들은 비행, 음주, 흡연, 가출, 자살, 폭력, 따돌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는 많은 경우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하는 문제가 된다. 사실 학교, 가정, 지역교회 등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상황들은 청소년들과의 관계에서 폭력, 탈가족화현상, 입시위주의 교육, 인성교육의 무관심 등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⁶⁵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 상황속에서 청소년들의 탈교회화 현상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교회에서 청소년들의 감소율은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장로교의 한 교단에 의하면 10년 전에 비해 20%정도 감소했다.⁶⁶ 이 수치는 교회 미래의 주역인 다음 세대의 위기를 알려준다. 따라서 교회는 청소년들이 삶속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스스로가 교회공동체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참된 제자로의 성장을 도와야 할

⁶⁴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단 정책총괄팀 편, 2006년 청소년 백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⁶⁵ 소태영, “청소년을 위한 지역교회 교육과정 개발,” 기독교교육정보 34 (2012), 117.

⁶⁶ 기독교공보, 2010년 11월 10일.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을 단순히 교회의 미래의 일원이 아닌 현재 신앙공동체의 일원임을 기억하고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⁶⁷

청소년의 통전적 선교

교회의 청소년 사역은 크게 중등부 사역과 고등부 사역으로 나뉘어진다.

우선 중등부는 아이들의 삶이 입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쓴다. 예배를 통해 아이들의 신앙을 세우고, 성가대, 찬양팀, 방송팀, 안내 봉사팀 등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며 준비하는 훈련도 한다. 그리고 고등부는

아이들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훈련한다. 예배뿐만 아니라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고 신앙으로 재무장시킨다.

고등학교 3학년생과 수험생을 위한 ‘두드림 Do Dream’ 예배와 ‘고3 기도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신앙을 잘 지켜 교회의 새로운 세대로 키우는데 힘쓴다.⁶⁸

더욱이 ‘청소년 단기선교학교’를 통해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에 대해 교육하고 각자의 삶속에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선교에서 대한 강의를 통해 선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⁶⁷ 장신욱, “청소년 교회교육에 관한 연구: 청소년교회로의 전환,”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21.

⁶⁸ 이바울, *30 새중앙교회 이야기*, 149.

아이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꿈꾸고 이를 수 있도록 세워준다.⁶⁹ 특별히 선교는 청소년기에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두신 학교에서도 이를 수 있는 것이고 청소년시기에도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다. 이에 ‘유스비카’ (Youth Vision Campus)라는 이름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안에 학교 예배모임 및 기도모임을 세워가고 있다. 중등부 14개, 고등부 10개의 유스비카가 세워져서 활동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모임을 가진다. 더욱이 이미 앞에서 언급한 새중앙 상담센터에서는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필요가 있는 청소년들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전문적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국가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접근을 통한 복음의 도전과 삶의 변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특별히 역기능적인 가족과 일탈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돌봄이 함께 연계되어 목양을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 상담센터나 청소년 전문 사역단체 등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가정과 학교, 교회의 연합적인 돌봄으로 연계되어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별히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사들과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 정기적인 기도모임이나 예배모임,

⁶⁹ Ibid., 145.

신앙적 상담과 유스비카와 같은 선교적 공동체모임은 청소년들의 신앙을 강하게 세우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의 상황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신앙안에 들어오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있다. 한 대학교의 설문결과(2011년 12월)에 의하면 채플에 참여하는 2600명의 학생들중에 28%가 교회에 대한 상당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⁷⁰ <2012년 한국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중 그리스도인은 17.2%에 불과했으며, 대학생의 71.4%가 교회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⁷¹ 그리고 해가 거듭될 수록 이 수치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의 빠른 변화를 알고 대응하지 못한 교회의 소홀함이 원인일 수도 있고 동시에 교회가 현대 사회속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잃고 있는 것의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의 교회이탈은 이미 유럽과 북미의 교회에서 겪었던 동일한 현상으로 한국교회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은 이 문제에 관하여 방관하거나 형식적인 대응만을 할 수는 없는 중대한 과제를 가지게 된 것이다.

⁷⁰ 이정관,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경교육과 실제성의 원리,” *신학과실천* 43 (2015), 437.

⁷¹ 조은하, “‘어린이, 청소년 없는 교회,’ 현실로 다가오는가?” 20.

현대 사회속에서 청년들은 사회의 빠른 변화로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간다. 끝없는 경쟁과 취업난에 시달리며 현실의 한계에 체념하고, 이로 인한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 2000년 이후 20-30대의 청년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는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⁷² 결혼, 직장, 연애를 포기해야해서 ‘삼포세대’, 혹은 집과 경력까지 포함하여 ‘오포세대’, 그리고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세대라 하여 ‘N포세대’ 라고까지 불리는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불확실한 미래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 교회는 청년들의 현실의 아픔과 절망을 공감하며 소통하고, 시대적이고도 개인적인 아픔들 속에서 복음안에 있는 능력을 함께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적 삶으로 전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한다.

청년의 통전적 선교

교회내의 청년공동체는 ‘비전공동체’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세는 1청년, 26-31세는 2청년, 32세-결혼전은 3청년으로 나누고, 그 밖에

⁷² 김은혜, “한국교회 청년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독교윤리적 대안,” *기독교사회윤리* 30-7(2014), 12.

신혼부부교구, 예배교구, 새가족 교구로 조직하여 목양한다. 매 주일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예배후에는 각 교구별로 구역모임을 가진다. 구역모임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제목을 나누는 교제를 한다. 여러 양육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새가족반, 성장반뿐 아니라, 말씀과 삶을 연결시켜 영적 내성을 기르는 영적 훈련프로그램인 영적군사학교,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비전제자훈련이 있다. 또한 예비리더십훈련과 제자리더훈련을 통해 리더와 예비리더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고 있다.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신약과 구약, 교리, 교회사 등을 교육받고, 비전스쿨을 통해 연애학교, 결혼학교, 직장사명학교, 비전큐티학교, 성경통독학교, 예배학교 등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영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청년들로 하여금 선교적 삶을 살도록 훈련하고 파송하는 아웃리치에 힘쓰고 있다. 매년 4월과 10월에 비전전도축제를 통해 태신자를 품고 맞춤형전도집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구별로 남한의 6개도와 북한의 6개도를 품고 중보기도하며 통일한국을 준비한다. 국내외로 선교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노방전도, 위로사역, 미자립교회 성경학교, 찬양집회 등을 돕고 진행한다.⁷³ 국내외 아웃리치는 지난 5년동안만해도 350회를

⁷³ 이바울, 30 새중앙교회 이야기, 153.

넘었고 특히 해외나 타지역으로 장기간 출타하는 청년들을 학원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 군선교사와 같은 비전선교사로 파송하여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선교적 삶을 파송받은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비전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사역중 하나인 ‘Vision Campus(VICA)’ 사역은 자신이 속한 대학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며 주일과 주중의 삶을 선교로 통합시키는 사역이다. 대학캠퍼스는 안양대 VICA, 숭실대 VICA가 있으며, 직장캠퍼스는 범계VICA, 두산벤처다임 VICA, 해외캠퍼스는 중국연길 VICA가 있다. 특별히 군캠퍼스인 파주 00사단 GOP VICA는 한 달에 한 번씩 비전공동체 지체들이 GOP를 방문해 군장병들과 함께 예배하고 구역모임을 인도해주고 있다.

청년세대는 부모세대와 어린이세대의 중요한 연결고리이면서 가장 역동적이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이끌 수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 우리 나라에 들어 온 초기선교사들의 대부분이 청년세대였음을 감안할 때, 그리고 세계선교의 역사속에 두드러졌던 청년들의 헌신들을 고려할 때 현 시대에서도 청년들의 선교적 자원발굴과 선교적 역할의 감당은 주요해 보인다. 자칫 고립되고 위축되기 쉬운 청년들을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품어주고 삶과 신앙의 멘토로서 연결될 수 있다면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세상의 다양한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청년들이 단순히 지원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돌볼 수 있는 세대적 아웃리치를 감당하게 된다면 선교적 삶을 통해 청년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선교적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해갈 수 있을 것이다.

성인 및 노인의 문제

교회들의 많은 사역들은 일반적으로 성인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인들은 가정을 이끌고 사회적 활동의 주축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에 리더십들로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된다.

그러나 성인들이 사회와 시대속에 많은 변화속에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오늘날 성인의 중년기는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장기화되고 있다.

중년기는 개인들의 환경과 입장에 따라 인생의 위기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전환의 기회로 여겨지기도 한다.

중년기에는 자녀들의 성장과 분가로 인한 가족의 재조직, 부양의 책임, 퇴직, 건강, 신체적 변화, 사회적 역할 변화 등의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사회,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⁷⁴ 자녀들은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려고 하고, 직장에서는 이제 필요없는 존재가 되기도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남성은 여성성이, 여성은 남성적 성향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남편, 아내, 아빠, 엄마, 아들, 딸로서의 역할이 사라지거나 바뀌면서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거나 변화를 요구받고, 신체적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중년기는 이러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삶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세대와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새로운 사회적 위기인

‘고령화 사회’ 라는 것은 단지 노인인구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말한다.⁷⁵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영양, 위생 환경적인 수준이 향상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났고,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시화와 핵가족화와 같은 생활방식의 변화와 가치관의 차이는

계속해서 노인문제를 야기시키고 부양문제와 노후 복지와 같은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지고 사회속에서 위치를 잃어가면서

⁷⁴ 송은미, 이승연, “중산층 중년 기혼여성의 건강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과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2015), 532.

⁷⁵ 이은성, “고령화 한국사회와 교회 노인교육의 복지적 접근 및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47 (2016), 167.

다른 이들을 의존하며 살게 된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친구와 주위 사람들의 죽음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두려움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아를 통합하고 실패를 체험하면서 지혜와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완성의 단계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노인이 자신의 삶을 기독교적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남은 삶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지막까지 최선으로 하나님의 선교적 과업을 이루어 가도록 관심을 가지고 교육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성인 및 노인의 통전적 선교

무엇보다 성도들은 매주일 예배와 주중예배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동시에 회복과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선교적 도전을 받는다. 대그룹의 공적예배는 소그룹 모임인 구역모임을 통해서도 성도 각자의 신앙을 돌보는 것으로 이어진다. 여름과 겨울, 두차례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성인구역은 지역에 따라 모이게 되는데 남자목양 구역모임은 목요일 저녁, 여자목양 구역모임은 금요일 오전, 여자직장 목양구역모임은 목요일 저녁에 주로 모임을 가지며 상황에 따라 요일을 변경하기도 한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성도로 구성되어있는 실버구역모임을 별도로

운영한다.

매학기 수요일 오전과 저녁에 담임목사의 인도로 진행되는 구역장 성경공부를 토대로 구역장들을 훈련하고 구역장들은 자신이 속한 구역에서 구역원들과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린다. 또한 구역장은 구역원을 심방하고, 구역원들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며, 경조사를 챙기고, 신앙성장을 위해 교회프로그램과 각 부서의 참여와 섬김을 권면하며 영적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리고 모든 교구 사역의 시작과 마무리는 기도사역으로 진행되는데 특별금요성령집회, 신년일일금식기도회, 릴레이 중보기도, 토요심야기도회, 월요중보기도회, 레위기기도회, 교구리더심기도회, 교구별 기도회, 남자구역릴레이기도회, 구역모임시 중보기도회 등 교구 사역에 따라 다양한 기도회들이 진행된다.

그리고 성인들을 위한 제자훈련과정을 진행한다. 5주 과정의 새가족반은 교회에 처음 온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고, 단계별로 있는 훈련 프로그램까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와 담임목사의 목회철학, 그리고 예배생활과 교회의 비전 등을 배운다. 그리고 10주과정의 훈련과정으로 더 깊은 말씀 교육을 통해 말씀을 확신하게 하는 성장반 과정이 있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안에서의 모든

훈련이 제자훈련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좁은 의미에서 성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별도의 제자훈련반을 운영하고 있다. 제자훈련은 새가족반, 성장반을 거쳐야 받을 수 있다. 성도로 하여금 수동적인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적극적인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한다. 말씀을 배움으로 인격이 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⁷⁶ 교역자 뿐만이 아니라 목양장로들도 제자반을 교육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운영되는 바이블 아카데미는 여러 말씀 강좌들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신학적 이해를 돕는다. 성경을 연구하는 더 넓은 지식과 이해를 통해 성경에 대한 지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다.

노인세대를 위해서는 ‘글로리아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성가반, 성경학과반, 한글반,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 노래교실반, 웰빙체조반, 웰빙댄스반, 라인댄스반, 요가반, 공계반, 휴대폰 활용반, 하모니카반 등 다양한 교양강좌들을 진행한다. 노인들은 교양강좌를 통해서 여러 이유로 손을 놓았던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교회는 등교용 차량 운행, 무교 급식, 교양강좌 재료비, 소풍 경비, 이미용 재료비 등을 지원한다.⁷⁷ 스태프들은 모두 평신도이다. 특별히 노인세대를 위한 제자훈련인 ‘시니어 제자훈련’을 진행함으로 성인과 구별된 70세

⁷⁶ 이바울, 30 새중앙교회 이야기, 158.

⁷⁷ Ibid., 114.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의 양육훈련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리고 단기선교학교, 새중앙전문인선교훈련(SMTC) 등 다양한 선교훈련들을 통해 성도들을 선교사로서 훈련시키고, 노인세대를 위해서는 시니어 선교학교를 통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선교적 역할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주며, 시니어 선교역사, 시니어 선교사의 역할, 시니어 선교전략 등의 강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웃사랑 초청잔치’와 ‘새생명축제’, 일년에 두 번 열리는 전도축제로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태신자를 교회로 초청하게 된다. 축제전부터 전도대상인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개인별로 또는 교구의 각 구역별로 음식이나 선물 등으로 태신자와 관계를 맺거나 노방전도를 통해 태신자를 교회로 초청한다.⁷⁸ 그리고 기간동안 유명인들의 다양한 간증들과 특송과 음악회와 같은 특별 순서를 진행하고 복음메세지를 통해 구원의 결실을 거두도록 돕는다.

한국사회의 경우 계속된 고령화 추세에서 노인들의 신앙돌봄과 그들의 선교적 자원으로서의 연구 및 개발은 매우 중요해져가고 있다. 목양에 있어서도 부모세대뿐만이 아니라 조부모 세대를 위한 특별한 훈련들도 중요하고 과거의 노인대학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그들의 선교적 경험과 자원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하는 여러 시도들이 필요하다. 성인들과 노인들이 젊은 세대들과 소통할 수

⁷⁸ Ibid., 200.

있는 장을 교회를 통해 제공받고 전세대가 함께하는 소그룹모임이나 아웃리치를 통해 인생의 하반기를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자원들을 동원하여 마음껏 펼칠 수 있다면 그들은 통전적인 선교적 삶을 통한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사역의 준비는 단순히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등의 다음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인과 노인들을 포함한 전세대적인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영역 관점의 통전적 선교

지역교회와 지역교회간의 상황

한국 교회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급성장을 경험하였고 세계 50대 교회의 상당수가 한국에 있다.⁷⁹ 성장세를 이어오던 한국 교회는 1995-2005년 사이에 - 1.6%의 성장률을 보이며 하양세로 접어들고 있다.⁸⁰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3%이지만 ‘신뢰한다’는 응답은 18.4%에 불과했다.⁸¹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인식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교회의 성장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이렇게 낮은 신뢰도와 함께 현대 교회의 세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점점 노령화가가

⁷⁹ 안교성, “총회 1백주년 맞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명암,” 기독교보. 2012년 2월 28일.

⁸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 통계청, 2005).

⁸¹ 이원규, *종교사회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서울: 도서출판 KMC, 2010), 132.

되어가고있으며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⁸²

교회의 성장과 쇠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상황적인 요인과 교회의 제도적 요인, 그리고 지역의 상황적 요인이 있다. 교회의 내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의 특징, 인구, 관계, 경제, 문화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은 교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해주고, 성장과 쇠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⁸³ 지역 교회들간의 네트워크가 활발하다는 것은 정보를 교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유하며 전략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⁸⁴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연합함으로 지속적인 선교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통전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아무리 뛰어나고 규모가 있고 성공적인 사역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지역교회만의 역할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다양한 교회들의 연합된 생태계속에서 일치된 방향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

지역교회와 지역교회간의 통전적 선교

교회는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협력하여 아웃리치와 재정지원

⁸² 장남혁, *한국문화 속의 복음: 21세기 급변하는 문화와 복음적 삶* (서울: 예영, 2010), 242.

⁸³ 소태영, “청소년을 위한 지역교회 교육과정 개발,” 115.

⁸⁴ 김재중, 성백, “학원선교를 위한 지역교회 네트워크 전략모형개발,” *기독교교육정보* 18 (2007), 287.

등으로 돕고 있다. 우선 전세대 아웃리치를 통해 미자립교회들을 포함하여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다양한 교회들을 돕고 있는데 청년들의 경우는 1년 12달 지속적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성인의 경우는 여름기간에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도팀, 이미용팀, 침술팀, 의료팀, 영정사진 촬영팀, 주일학교 팀, 발마사지 팀 등으로 구성된 연합팀들이 전국의 미자립교회로 흩어지고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닌 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전도에 힘쓰고 있다.⁸⁵

또한 성경적으로 건강하고 복음의 열정과 비전이 있는 여러교회들을 일회적인 아웃리치를 넘어서 협력교회로 선정하여 재정지원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아웃리치를 진행해가고 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과 단체들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주차장과 강의실을 비롯한 교회의 공간들을 공유하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에 관련된 대책에도 함께 협력하고 있다. 또한 교단 내의 여러 교회들과는 연합하여 교단 신학교, 신문사, 각종 교육과 워크샵 등의 다양한 사역들에 함께하고 있고 교단을 넘어서도 한국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에 함께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선교지의 교회들과도 필요에 따라 협력하며 선교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 한 예로 인도네시아 현지교회인 살롬교회와 협력하여 리더십 교육 및 현지 교단의 목회자 교육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다

⁸⁵ 이바울, 30 새중앙교회 이야기, 202.

그 동안 그러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교회는 더욱 자신만의 개교회 중심주의를 벗어나 함께 동역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과 사역들을 보완하여 서로의 경쟁적인 구도의 사역이 아니라 보완하고 발전하여 상생하는 구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작은 교회와 큰 교회가 협력하고 자원을 공유하고 섬기고, 교단을 초월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함께 협력하고 선교사역을 위해 필요에 따라 지역과 교파를 넘어 조그마한 일이라도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목표라 치부될 수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역철학과 방향들을 감당하되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과 실천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부르심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교회와 신학교 및 교단간의 상황

재단에 의해 설립되는 신학교들은 재단이사회의 강한 영향력을 경험한다. 그 이유는 신학교가 재단이사회의 관리와 감독하에 운영되기 때문인데, 이때 이사는 일반적으로 소속 교단에서 파송되기에 소속교단 또한 신학교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⁸⁶

한국의 신학교들은 교단과 함께 교회와도 연관되어 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형성한 데에는 국내외적인, 역사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또는 이념적인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원인이 되었을 것인데,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 중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은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6.25를 지나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잃었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여러 교단의 선교부는 해외유학을 강하게 추진하며 지도자 양성에도 왔고, 이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에 큰 공헌을 하였다.⁸⁷ 이것을 발판으로 한국사회가 발전해나감에 따라 한국교회도 성장하였고, 신학교육도 질적인 면에서 우수성을 가지게 되었다. 신학교육은 교회와 떼레야 떼 수 없는 함께 존재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교육은 선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현대의 신학교육을 통한 교회지도자 양성은 문화와 언어와 인종을 뛰어넘고 있다. 외국인들을 위한 신학과정의 개발과 온라인 수업이라는 창의적인 접근을 통한 선교의 중요한 방향들이 모색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⁸⁶ 강근환, “한국교회와 신학교육,” *신학과교회* 1 (2014), 148.

⁸⁷ Ibid., 153.

지역교회와 신학교 및 교단간의 통전적 선교

교회는 교단신학교와 협력하여 요청되는 다양한 필요들을 지원하고 있다.

신학교에서 필요시 교회수양관 시설 등을 지원하기도 하고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교회 내에 해외선교사를 위한 선교관과는 별도로 비전선교관을 운영하여 신학생들에게 기숙사 형태의 시설을 매 학기 제공하고 있다. 특별히 교단선교부에 소속된 여러 선교사들과 다양한 사역들을 협력하고 필요에 따라 선별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선교센터를 통해서도 국내에 방문한 선교사들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필요에 따라 교회 내의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과 선교 프로그램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해외 선교지의 신학교와 교단과도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통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의 GGP교단과 협력하여 2016년부터는 교단산하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들을 매년 두 차례에 걸쳐 훈련하고 있다. 전도훈련과 제자훈련 프로그램, 큐티사역과 발마사지 전도방법 등을 전수하고 인도네시아 및 이슬람권 내의 교회개척운동 등을 함께 협력하며 지원하고 있다.

지역교회는 신학교에서 배출된 사역자들이 각자 자신의 부름받은 은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주된 장이 된다. 신학교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갈 때 신학교를 통해 사역의 현장에 투입된 신학생 및 목회자는 건강하고 성경적인 바른 목회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신학교와 협력하고 서로의 강점적인 자원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신학생들을 후원하거나 학교의 필요부분을 채워주고 신학교는 지역교회에 유의미한 재교육과 전문적 자원들을 보강하며 발전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국내 뿐만이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현지 신학교를 통한 목회자 및 평신도 사역자들의 양성은 선교지에서의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다. 자립형 선교를 위해서는 현지 사역자가 필수적인데 선교지의 신학교들을 통해 이러한 비전들은 실현될 수 있다.

지역교회와 신학교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지역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특별히 교단신학교의 경우에는 지역교회의 지원과 협력이 보다 안정적인 신학교육과 교단의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선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단이 단지 지역교회가 속해있는 개 교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 선교를 위해서는 복음안에서 타교단과도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선교지에서의 현지 교단과의

협력은 거시적관점에서 교단 산하의 수많은 지역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협력하는 해당교회와 단체는 자기 중심적 선교사역의 틀을 벗어나 하나님의 선교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간의 상황

서구 개신교의 선교가 선교회 중심인 것에 반해 한국선교의 두드러진 특징중에 하나는 교회 중심적인 선교를 지향해왔다는 것이다.⁸⁸ 초교파적인 선교단체가 교단선교부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확보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⁸⁹ 교회가 교단선교부와 연결되어 있는 결속이 선교단체들과의 협력보다 더욱 강해보인다. 교단의 선교부는 교회의 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현상은 선교와 후원교회의 갈등문제를 야기시키고 선교의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기도 한다. 교단 선교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동시에 이미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갖추고있는 건강한 선교단체들과 협력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개교회 중심적 선교 성향은 교회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 교회를 위한 선교의 모습을 가지는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하고 지원중단 등의 문제로 교회가 선교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⁸⁸ 안교성, "한국선교 30년의 명암," *한국기독교와 역사* 38 (2013), 102.

⁸⁹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연구개발실, "2011년 선교사 통계지표와 한국선교의 발전," *KMQ* 41 (2012. 봄), 59.

한국일(2004)는 한국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후원교회가 바른 선교이해가 없이 교회의 정책을 강요하여 생기는 갈등, 대안이 없는 자녀교육, 보장되어있지 않은 미래, 사역을 진단하거나 점검받는 기회의 부족, 개별적 후원금 모금의 어려움, 그리고 심리적인 상처와 외로움이라고 정리한다.⁹⁰ 그러나 특별히 선교현장에서는 반드시 협력선교의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 협력하는 선교에 대한 무관심과 의지의 부족은 선교사와 현지교회의 마찰,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간의 불필요한 경쟁, 폐쇄적 시각, 지나친 교파중심주의, 권위의식 등 갈등의 모습을 보인다.⁹¹

한국교회와 선교단체의 후원과 관심이 없으면 선교사는 현장의 모든 문제와 짐을 홀로 감당해야하는 외로운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교파주의와 교회중심의 선교에서 벗어나 교회와 선교단체가 협력할때 선교사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선교전략과 돌봄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선교현장의 선교활동을 지속성있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의 현장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특히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의 배경에서 오는 문화에 대한 상호적 이해와 배움에 대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타문화권의 선교를 위해서는 이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선교현장의 선교대상자들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

⁹⁰ 한국일, "선교 120년과 한국선교의 미래," *선교와신학* 14 (2004), 137.

⁹¹ *Ibid.*, 129.

편견을 버리고 잘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훈련도 필수적일 것이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간의 통전적 선교

교회는 다양한 선교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여러 해외선교 단체들과 선교연구단체들, 캠퍼스선교와 군선교, 다음세대 선교와 문화선교, 그리고 문서선교와 미디어선교 등 건강하고 전문적인 선교단체들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동역을 이루어가고 있다. 교회 내의 새중앙전문인선교훈련(SMTC)의 다양한 강의를 여러 선교단체들과의 협력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선교현장 훈련시 함께 동역하여 사역을 진행하기도 한다.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연합아웃리치를 실시하기도 하고 단기프로젝트나 중장기 연합사역에 함께 협력하는데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 성도들은 자신의 독특한 은사와 전문성들을 더욱 다양하게 마음껏 펼치게 된다. 또한 교회에서 평신도들을 훈련하여 선교사로 파송시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건강한 선교단체들과 함께 파송되는 것을 권장하고 선교지에서도 위기관리와 선교사 재교육 등 필요한 부분에 있어 여러 선교단체들과 동역하도록 힘쓰고 있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이면서 넓은 의미에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영적 공동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역교회의 목회철학과 비전에 부합한 전문적이고도 유능한 선교단체와의 협력은 선교의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선교사의 파송과 돌봄에 있어서 지역교회와 교단, 그리고 선교단체가 함께 협력하고 서로의 강점의 범위를 인지하고 조율해 나간다면 그동안 한국선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이기적이고도 경쟁적인 자기중심적 선교에서 괄목할만큼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별히 선교사의 파송단계에서부터만이 아니라 교회내의 양육과 선교훈련에 있어서도 필요한 전문성이 선교단체에 있다면 함께 네트워크하고 각각의 선교단체마다 강점과 사역들이 상이할 수 있기에 성도들의 은사와 전문성에 따라 선별하여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회와 선교단체가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통하여 사역하는 경험들을 쌓아간다면 통전적이고도 균형잡힌 아름다운 선교적 결실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역교회와 NGO단체간의 상황

지역 사회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 교회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접근하여 응답해야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로부터 교회는 자기들만의 성장과 만족을 중요시하는 집단이라는 이미지대신 사회적 신뢰를 가지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이면서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공동체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워졌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진다. 과거에도 한국의 기독교는 사회운동인 계몽운동, 한글운동, 야학운동, 농촌계몽운동, 금주운동⁹² 등을 일으키고 지역과 한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 지금도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의 일부분임을 잊지않고 지역사회를 선교지라 생각하며 문제해결과 도움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해야한다. 또한 지역교회의 교인들도 지역주민들이기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한 도움은 교회의 성장과 위기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교회만의 노력으로 지역과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주기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한 연합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 중에 지역교회와 일치된 방향과 프로그램등을 제공하는 NGO들을 통한 협력과 섬김은 교회의 선교적 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당하도록 돕는다. 기독교 NGO 단체들이나 일반 사회의 NGO 단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안에서 바른 가치와 비전, 그리고 열매들이 있다면 교회의 협력대상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NGO 단체가 제한된 인력과 재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는 지역의 자원으로써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해주고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또한 교회는 이미 건강한 활동을 하고 있는 NGO 단체들과 협력해서 중복적인 사역의 비효율성을 피하고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할만한

⁹² 이원규, *종교사회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97.

사역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역교회와 NGO단체간의 통전적 선교

교회에서 2006년에 시작된 NGO ‘돕는사람들 (Good Helpers)’을 통해 다양한 긍휼과 구제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년소녀가장들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후원하고, 홀몸노인들과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의료봉사 지원 사업, 희망 나눔 프로젝트, 자원봉사 센터 운영, 긴급구호, 안양시 수리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탁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2천 8백여 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수리복지관은 물리치료, 감각통합치료, 언어치료 등 의료재활사업과,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시리재활사업, 수중재활 통합 프로그램, 주단기보호센터 등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⁹³. 또한 해외 사업으로는 해외아동 결연을 통해 아동의 식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해외 결연지의 구호 및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빈민국 및 북한 어린이를 위한 의료기와 의약품 지원 사업 및 해외 긴급 구호 사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전달해 주고 있다.⁹⁴ 그리고 ‘돕는 사람들’ 이외에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이나 ‘복음의 전함’ 등과 같은 다양한 NGO단체들과도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⁹³ 이바울, *30 새중앙교회 이야기*, 194.

⁹⁴ Ibid., 186.

보다 통전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

교회는 NGO단체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섬김이나 세계선교의 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건강하고 신뢰받는 NGO를 통해 교회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소외받는 이웃이나 세계의 어린이 결연이나 세계의 구호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 특별히 해외 선교지의 경우 복음에 닫혀있는 곳이 많은데 직접적인 기독교적 이름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NGO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어떠한 사역이든 직접적인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선행의 섬김의 모습으로 복음의 불모지 땅에 선교의 기경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NGO와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 갈 수 있다. 한 지역교회의 역량이 때로는 NGO와의 협력없이도 능히 그 이상의 전문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나 NGO와의 연합은 개교회 중심주의를 벗어나 다양한 은사와 역할들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통전적 선교를 이루어가는 주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해외 선교사의 경우에도 현지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NGO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비지니스선교나 교육선교, 의료선교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 선교의 최전방에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기독교박해 국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경우에, 한국교회는 지역교회와 교단, 그리고 선교단체와의 협력을 넘어서 신뢰받는 NGO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역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은사별 사역간의 상황(교육, 문화, 비즈니스, 상담, 구제 등)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⁹⁵ 교회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평신도가 아닌 세상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평신도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주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런 은사의 개발은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교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준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들이 사역화되고 함께 네트워크될 때 통전적 선교는 놀랍게 이루어져갈 수 있다. 여기에서 네트워크사역은 단지 은사배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은사를 발견하고 가장 적합한 사역처에 배치하여 비전에 따라 서로 네트워크하며 목적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⁹⁶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육선교도 가능하고 비즈니스 선교도 가능하다.

상담이나 구제도 가능하고 다양한 전도법 개발과 의교와 법률선교도 가능하다.

특히 이 시대의 문화적 코드에 맞는 선교적 접근으로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 이러한 문화선교는 좁은 의미에서 선교의 수단으로 문화예술활동을

⁹⁵ 남정우, “평신도 은사 개발에 기초한 한국적인 선교적 교회론,” *선교신학* 27 (2011), 185.

⁹⁶ 김영평, “특집 3. 은사개발과 교회교육: 은사배치 사역의 교회교육적 적용” *교육교회* 279 (2000), 17.

활용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의 문화속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⁹⁷ 지역교회의 문화사역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고 소외계층의 문화적 복지에 기여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해 접촉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또한 교회의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성도들의 은사를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은사별 사역간의 통전적 선교

새중앙교회에는 각자 활용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에 따라 섬길 수 있는 여러 선교회들이 있다. 먼저 의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의료선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의료 혜택을 주고자 시작되었으며 교회 전도여행에도 주요 파트로 참여한다. 해외 선교팀을 구성하여 선교지에서도 의료를 통해 도움의 손길을 준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이민자들도 섬기고 있다. 의료선교는 의사, 약제부, 접수부, 정리정동 등의 여러 파트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⁹⁸

또한 법률선교회는 법률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복음의

⁹⁷ 조용훈, “지역교회 문화사역 현실과 미래적 과제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45-2 (2010), 158.

⁹⁸ 이바울, 30 새중앙교회 이야기, 86.

통로로 쓰임받고자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발족되었다. 개인 상담실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1:1로 상담하며, 긴급사안이나 원거리 거주자, 노약자, 환자를 위해 전화상담과 출장상담도 한다.⁹⁹ 발사랑선교회의 경우에는 교구에 소속된 노인정을 방문하거나 태신자들을 발마사지라는 접점을 통해 발을 섬겨주며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¹⁰⁰ 선교사님들에게도 발마사지의 방법을 전수해주고 해외의 선교지에서 직접 현지 목회자들을 교육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미용선교회는 1995년 외국인선교회 참석자들에게 이미용 봉사를 해준것을 시발점으로 외국인과어려운 이웃들, 미자립교회, 새중앙 지교회, 병원이나 환우가 있는 가정 등을 돌며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¹⁰¹ 이미용 서비스를 받기 불편한 환우가 있는 병원들과 요양소 등이 주요 방문처이며 서울 구치소 등 요청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가서 봉사하고 기술을 전수한다. 또한 사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의 비전을 담은 사진선교회는 예배는 물론 교회의 행사가 있으면 촬영을 하며 사역의 귀한 발자취를 남긴다. 2008년부터는 가족사진 촬영 행사를 통해 많은 가정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¹⁰²

한편 레포츠선교회는 새신자들이 선교회를 통해 교회와 믿음생활에 보다

⁹⁹ Ibid., 88.

¹⁰⁰ Ibid., 64.

¹⁰¹ Ibid., 80.

¹⁰² Ibid., 90.

친밀감있게 정착시켜주고, 소외된 이웃과 믿지 않는 영혼들이 레포트를 통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산, 골프, 볼링, 배구, 족구, 농구, 사이클, 인라인스케이트, 마라톤, 바둑, 장기 등 다양한 분야의 모임들이 있다. 그리고 새중앙교회 출판사인

‘글로벌제자훈련원’에서는 교회신문을 비롯해 큐티책인 해피투게더, 키즈해피투게더, 비전큐티를 출판하고 그 밖에 새가족반, 성장반 등의 훈련교제와 다양한 단행본들을 출판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에 따라 다양한 전도사역들과 기도사역, 찬양사역과 예배사역, 문화사역과 미디어사역 등이 이루어지는데, 성도들의 다양한 전문성들이 선교사역화되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장을 열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하셨다. 무엇보다 각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성도들의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꺼내어 쓸 수 있도록 은사발견의 여러 기회들을 제공하고 섬김의 장을 마련할 때 많은 사역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교회안의 많은 사역의 자리들에 성도들을 배치하는 것을 벗어나서 성도들의 은사가 사역화되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준다면 창조적인 수많은 사역들이 생겨날 수 있다. 교회안의 소그룹 모임도

연령별이나 지역별로 구분하여 모일 수 있지만 때때로 은사별로 모임을 구성한다면 유사한 은사들 안에서 선교적 시너지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안에서도 다양한 비즈니스 직종들이 존재하기에 세분화하여 모임이 진행된다면 선교적 필요시에 함께 동참하여 기여할 수 있다. 비즈니스 영역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 교육, 의료, 법률, 정치, NGO, 교회개혁, 어린이사역, 가정, 상담, 구제 등 많은 영역에서 재능과 은사가 있는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말씀안에서 선교적 고민과 실제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삶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고 동일 문화권 및 타문화권에까지 선교사로서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때 통전적 선교는 힘있게 진행될 것이다.

제 IV 장

결 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선교적 명령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가장 우선적인 명령이자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성도들은 자신들의 은사와 자원들을 통하여 함께 협력하고 하나되어 통전적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많은 선교사역들을 펼쳐왔지만 통전적 선교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협력선교에 관한 미약함을 보이면서 제대로 된 통전적 선교가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서로 동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을 이루어 통전적인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적 범주와 세대적 범주, 그리고 영역적 범주 모두를 아우르는 통전적 선교의 삶을 이루어간다면 보다 성경적이고 균형잡힌 건강한 선교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역적 범주로 본다면, 선교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이해하고 나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부흥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정과 일터, 지역과 북한 및 한반도, 그리고 더 나아가 디아스포라와 세계에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확장되어가야 한다. 그리고 세대적 범주로 본다면, 어린아이세대로부터 청소년과 청년,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선교의 대상이자 주체임을 깨닫고 함께 연합하여 통전적 선교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더하여 영역적 범주에서 각 교회는 타교회와의 네트워크, 신학교 및 교단과의 네트워크, 선교단체 및 NGO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다양한 전문성과 은사별 사역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전적 선교를 발전시키며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통전적 선교에 관한 각각의 범주에 관하여 상황적 문제의식과 함께 새중양교회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간략하나마 미래적 제안을 제시해 보았다. 새중양교회의 사례들은 계속 변화되어가고 있고 또한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통전적 선교에 관한 그야말로 사례이기에 각 상황과 현장에 맞게 참고하고 보완 발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보다 건설적으로 이루어가는 발판으로 쓰임받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미래적 제안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체적인 사례들보다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길잡이역할 정도로 이루어졌기에 다른 연구들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통전적 선교의 미래

청사진들이 계속해서 함께 모색되어지길 기대해본다.

참고 문헌

외국어서적

Balia, Daryl and Kirsteen Kim. *Edinburgh 2010 : Witnessing to Christ Today of*

Edinburgh 2010 Series. Eugene, OR: Wipf & Stock, 2010.

Cha, Peter, S. Steve Kang, and Helen Lee. *Growing Healthy Asian American*

Churches. Downers Grove, IL: IVP Books, 2006.

Cole, Neil. *Organic Church: Growing Faith Where Life Happen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Chichester, 2005.

DePree, Max. *Leadership is an Art*. New York: Doubleday, 2004.

Doohan, Leonard. *Laity's Mission in the Local Church: Setting a New Direction*.

1st ed.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6.

Feucht, Oscar E. *Everyone a Minister: A Guide to Churchmanship for Laity and*

Clergy. St. Louis: Concordia Pub. House, 1974.

Fisher, David. *The 21st Century Pastor: A Vision Based on the Ministry of Paul*.

Grand Rapids: Zondervan, 1996.

Gibbs, Eddie, and Ryan K. Bolger. *Emerging Churches: Creating Christian*

Community in Postmodern Culture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5.

Glasser, Arthur F., Charles E. Van Engen, Dean S. Gilliland, and Shawn B.

Redford. *Announcing the Kingdom: The Story of God's Mission in the*

Bible.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3.

Hesselbein, Frances, Marshall Goldsmith, Richard Beckhard, and Peter Ferdinand

Drucker, eds. 1996. *The Leader of the Future : New Visions, Strategies, and Practices for the Next Era of The Drucker Foundation Future Series*. San Francisco: Jossey-Bass.

Hesselgrave, David J. *Planting Churches Cross-Culturally : North America and Beyond*. 2nd ed.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0.

Hughes, Dewi Arwel Bennett Matthew. *God of the Poor*. Carlisle: OM Pub, 1998.

Kim, Kirsteen. Andrew Anderson eds., *In Edinburgh 2010: Mission Today and Tomorrow*. Oxford: Regnum Books International, 2011.

Mead, Loren B. *The Once and Future Church : Reinventing the Congregation for a New Mission Frontier*. Washington, D.C.: Alban Institute, 1991.

Richman, N., Steavenson, J., and Graham, P. J. *Pre-school to Shool: a behavioral study*, London: Academy Press, 1982.

Sine, Tom. *The New Conspirators: Creating the Future One Mustard Seed at a Time*. Downers Grove, IL: IVP Books, 2008.

Snyder, Howard A. *Liberating the Church : the Ecology of Church & Kingdom*.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3.

Park, Kyeong-Sook. "Training Korean Missionaries for Team Effectiveness: A Study based on the KOSIN Missionaries in the Philippines." 선교학박사학위논문, Biola University, 1996.

한국어서적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단 정책총괄팀 편. *2006년 청소년 백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강승삼 편집. *한국교회의 새로운 도전 전방개척선교*. 서울: 한선협, 2005.

- 김동선. *통전적 선교를 위한 신학과 실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김태원. *전문인 선교사를 깨워라*. 서울: 이레서원, 2001.
- 이바울. *30 새중앙교회 이야기*. 경기: 로템나무 아래에서, 2013.
- 이원규. *종교사회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서울: 도서출판 KMC, 2010.
- 이재완. *교회와 선교 교육*.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 장남혁. *한국문화 속의 복음: 21세기 급변하는 문화와 복음적 삶*. 서울:예영, 2010.
- 한춘기. *교회교육 코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4.

논문, 잡지

- Hanciles, Jehu J., “Migration and Mission: Some Implication for the Twenty first Church.”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27-4 (2003), 146-153.
- Kim, Young Nam. “A Contextualized Training Program for Twenty-first century Korean Missionaries.” 박사학위논문,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4.
- Lee, Sun Young. “Lay Ministry: A New Mission Paradigm for the Korean Church in the 21st century.” 신학박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2.
- 강근환. “한국교회와 신학교육.” *신학과 교회* 1 (2014), 137-164.
- 김미선. “디아스포라 선교이해와 전략: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global

- diaspora network, GDN)를 중심으로.” *선교신학* 39 (2015), 41-67.
- 김수미. “통전적 선교-복음선포와 증명의 조화.” *복음과 선교* 29 (2015), 11-46.
- 김영평. “특집 3. 은사계발과 교회교육: 은사배치 사역의 교회교육적 적용.”
교육교회 279 (2000), 15-19.
- 김은혜. “한국교회 청년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독교윤리적 대안.”
기독교사회윤리 30 (2014), 7-36.
- 김재중, 성백. “학원선교를 위한 지역교회 네트워크 전략모형개발. *기독교교육정보*
18 (2007), 281-309.
- 김형길, 김재균, 김영숙. “어린이 신앙교육의 가정과 교회 협력 방안:
자기결정성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로고스경영연구* 14-2 (2016)173-192.
- 남정우. “평신도 은사 개발에 기초한 한국적인 선교적 교회론.” *선교신학* 27
(2011), 159-196.
- 박부진. “특집 2: 현대 한국사회 - 가족, 교육; 한국사회의 이론실태와 이혼가족의
문제.” *사회과학연구* 9 (2000): 84-101.
- 삼성경제연구소.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 3.3 전략.” *SERI 경영노트* 70 (2010),
1-11.
- 소태영. “청소년을 위한 지역교회 교육과정 개발.” *기독교교육정보* 34 (2012),
113-143.
- 송민정.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 송은미, 이승연. “중산층 중년 기혼여성의 건강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과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2015), 531-549.

- 안교성. “한국선교 30년의 명암.” *한국기독교와 역사* 38 (2013), 89-118.
- 안선희.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실천신학적 성찰: 재사회화 통로로서의 예배개신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7-1 (2010), 343-362.
- 왕은자, 전민아, 홍희정.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7-5 (2016), 487-512.
- 이기복. “신앙교육의 터전, 가정과 교회” *교육교회* 379 (2009), 14-19.
- 이연옥. “부모의 방임, 부부갈등 요인이 중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 자아 탄력성의 조절변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16.
- 이은성. “고령화 한국사회와 교회 노인교육의 복지적 접근 및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47 (2016), 161-188.
- 이정관.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경교육과 실제성의 원리.” *신학과실천* 43 (2015), 433-459.
- 이창덕. “한국 가족의 의사소통 문제와 개선 방안.” *화법연구* 9 (2006), 351-388.
- 이현송. “우리사회의 가족 어디로 가고 있다.” *보건복지포럼* 115 (2006), 56-63.
- 이현주. “이혼가정아동을 위한 사회적 문제해결 향상 집단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2017.
- 이혜숙. “중년기 위기 극복을 위한 코헛의 자기 심리학의 목회상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2004.
- 장세진.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직무 스트레스의 관리.” *한국산업간호협회지*, 12-3 (2005), 25-31.
- 장신욱. “청소년 교회교육에 관한 연구: 청소년교회로의 전환.” 석사학위논문,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정유성. “특집 2 : 현대 한국 사회 - 가족 , 교육; 밑에서 작게 , 그리고 천천히 - 교육시민운동과 교육정치학.” *사회과학연구* 9 (2000), 118-141.
- 장화선. “우리나라 교회교육의 회복을 위한 방안: 어린이 및 청소년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성경과신학* 75 (2015), 259-283.
- 조용훈. “지역교회 문화사역 현실과 미래적 과제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45-2 (2013), 145-170.
- 조은식. “탈북자를 위한 중국교회의 역할.” *선교신학* 41 (2016), 391-421.
- 조은하. “ ‘어린이, 청소년 없는 교회,’ 현실로 다가오는가?” *기독교사상* 653 (2013. 5), 18-23.
- 최동규.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본 교회.” *선교신학* 36 (2014), 327-353.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연구개발실. “2011년 선교사 통계지표와 한국선교의 발전.” *KMQ* 41 (2012. 봄), 59-65.
- 한국일. “선교 120년과 한국선교의 미래.” *선교와 신학* 14 (2004), 109-142.
- 한권식.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전략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영산신학대학원, 2009.
- 허도화. “교회의 사회적 영성 회복 -공동예배를 통한 사회화 훈련을 중심으로.” *신학과 선교* 50 (2017), 195-232.
- 허성업. “통일 관계에서 본 북한선교 정책전략: 북한의 인권과 탈북민 문제를 중심으로.” *선교신학* 42 (2016), 323-358.
- Santos, Narry F. “Exploring the Major Dispersing Terms and Realities in the Bible.” *Global Diaspora Missiology Consultation*, Alberta, Canada

(2006. 11).

Tira, Sadiri Joy, “Diaspora Missiology.” Global Diaspora Mission

Consultation, Seoul, Korea (2008. 8).

기독교공보.

세계일보. 2016년 2월 19일자.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 고통. 부부갈등은 이혼사유”

안교성. “총회 1백주년 맞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명암.” 기독교공보. 2012년 2월

28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 통계청, 2005.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Duck Young H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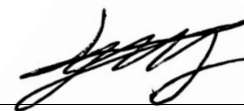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May.7, 1977

Parent's Names: Pilhwan Hwang and Jongnam Hong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Soong-Sil High School 300-88, Sinsa-dong, Eunpyeong-gu, Seoul, Korea.	Diploma	Feb., 1996
Collegiate: Yon-Sei University 134, Sinchon-dong, Seodaemun-gu, Seoul, Korea.	B.A.	Feb., 2002
Graduate: Talbot School of Theology 13800 Biola Ave. La Mirada, CA 90639, U.S.A.	M.div	May, 2009
Graduate: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U.S.A.	Th.M.	Aug., 2012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Duck Young Hwang

Name typed

May 4, 2018

Date